

《한시외전(韓詩外傳)》문론 역주*

이장휘**

〈목 차〉

1. 들어가며
2. 번역 및 역주
3. 나오며

1. 들어가며

《한시외전》은 서한(西漢)의 한영이 지었는데, 한영에 대해 《한서(漢書)》권88 〈유림전(儒林傳)〉 제58에 의하면

“(서한) 연나라 사람이다. 효문제 때 박사를 역임했고, 경제 때는 관직이 상산왕(유순(劉舜)의) 태부에까지 올랐다. 한영은 (《시경(詩經)》의 시인들이) 시를 짓는 본래의 의미를 미루어서 《내외전》 수만자를 지었는데, 그 책의 말들은 제나라와 조나라일대에서 전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주된 내용은 같았다. 회남 사람 분생이 《한시(韓詩)》를 받아들였다. 연나라와 조나라일대에서 《시경》을 강론한 사람들은 모두 한생으로부터 나왔다. 한생은 또한 사람들에게 《역》을 가르치고, 《역경》의 함의를 미루어서 주석을 단 《역전》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연나라와 조나라일대에서 《시경》을 좋아하였으므로, 《역》은 쇠미하여 한영 스스로 학생들에게만 전수해 주었다. 무제 때, 한영은 동중서와 황제 앞에서 변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의 사람됨이 명석하고 다부지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조리 분명해서

* 본역주자가 본고를 역주할 때는 허유홍(許維通)이 지은 《한시외전집석(韓詩外傳集釋)》(北京: 中華書局, 2009)을 판본으로 사용하였고, 조대중(曹大中)이 번역한 《백화한시외전(白話韓詩外傳)》(長沙: 岳麓書社, 1994)을 참조하였다.

** 울산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강사 changhuiy@hanmail.net

동중서도 그를 난처하게 할 수 없었다. 후에 그의 손자 한상이 박사가 되었고, 효선제때의 탁군 한생은 그의 후손이다.”¹⁾

고 하였다.

현존하는 《한시외전》은 10권 310장이다. 《한서》〈예문지〉에 의하면 “한영은 일찍이 《내전》4권과 《외전》6권을 지었다(《韓內傳》四卷, 《韓外傳》六卷)”고 한다. 한영이 《시경》을 주로 언급한 것은 《내전》이었는데, 남송(南宋)이후 《내전》은 실전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의 내용과 체제가 어떠했는지 고찰할 방법이 없다. 다만 송대 이전의 전적들에 남아 있는 일부 내용을 통해 볼 때, 《시경》의 경전적인 의미를 연구토론해서, “시인들이 작문하는 의미를 깊이 미루어 지은(推詩人之意而作)” 저작일거라고 추정할 따름이다. 남송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은 《외전》인데, 전체 내용을 보면 《내전》의 성격과 다른 책이다. 《외전》의 내용은 청대 영용령함(永瑔領銜)이纂修한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에서 “그 책에서는 잡다하게 옛 일들과 옛 말들을 인용해서 《시경》의 말들을 증명하였으므로 경전의 의미와 서로 관련되지 않고 서술한 것은 대부분 주진시기의 제자서(諸子書)들과 서로 차이가 난다. 반고는 (《한서》〈예문지〉에서) ‘삼가 시가 어떤 것은 《춘추》를 취하고, 잡설을 채록하였으므로 다 그 본래의 의미는 아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가?”²⁾라고 말한 것과 같을 것이다. 또 《한시외전》의 체제는 한대 유향(劉向)의 《신서(新序)》나 《설원(說苑)》·《열녀전(列女傳)》과 자못 일치하는 면이 있다. 즉 자신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이전의 경서(經書)나 사서(史書)·자서(子書)의 내용을 인용해서 구체적이고 생동적인 이야기를 서술한

1) 班固 著, 《漢書》(北京: 中華書局, 1982) 678쪽 인용. “燕人也. 孝文時爲博士, 景帝時至常山太傅. 嬰推詩人之意, 而作《內外傳》數萬言, 其語頗與齊、魯間殊, 然歸一也. 淮南貢生受之. 燕、趙間言《詩》者由韓生. 韓生亦以《易》授人, 推《易》意而爲之傳. 燕、趙間好《詩》, 故其《易》微, 唯韓氏自傳之. 武帝時, 嬰嘗與董仲舒論於上前, 其人精悍, 處事分明, 仲舒不能難也. 後其孫商爲博士, 孝宣時涿郡韓生其後也.”

2) 永瑔領銜 纂修, 《四庫全書簡明目錄》(北京: 中華書局, 1964) 567쪽 인용. “其書雜引古事古語, 證以詩詞, 與經義不相比附, 所述多與周秦諸子相出入. 班固稱‘三家之詩, 或取春秋, 採雜說, 咸非其本義’, 或指此類歟?”

다음, 《시경》의 상응하는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관점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물론 《시경》을 인용해서 자기 관점을 논증하는 방식은 선진시기의 자서(子書)에 일찍부터 널리 취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논어(論語)》나 《목자(墨子)》·《맹자(孟子)》같은 책들인데, 특별히 《순자(荀子)》가 가장 전형적인 예³⁾이다. 이 저작들에서는 흔히 자신의 견해를 먼저 직접 논술한 다음, 《시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관점의 정확성을 증명하였지만, 《한시외전》에서는 먼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나 서술한 연후에 다시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시도하였으므로 이전 사람들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왕세정은 《한시외전》에서는 《시경》을 인용해서 사실을 증명하였지, 사실을 인용해서 《시경》을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설은 지극히 정확하다고 하였다.”⁴⁾고 했다. 이 말은 《한시외전》의 문장구조 특징 가운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절대다수 문장구조의 특징을 정확하게 개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史料)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존하는 《한시외전》은 이미 원래 책의 면모가 아니다. 《한서》〈예문지〉에서 “한영은 일찍이 …… 《외전》6권을 지었다”고 했지만, 현존하는 《한시외전》이나 《수서(隋書)》〈경적지(經籍志)〉·《신당서(新唐書)》〈예문지〉 등을 보면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한시외전》의 배열구조나 내용에 있어서 아마도 본래의 모습을 상당부분 상실한 변화가 있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시외전》의 내용이나 체제는 다만 《시경》을 인용해서 사실을 증명한 것이므로 사실 《시경》의 내용과는 그다지 관련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한시외전》의 일부 내용 가운데는 한영의 중요한 문예관이 서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서한 전기 문예사상 발전의 궤적을 살펴보면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의 사상이 복잡하게 섞여있는데, 이러한

3) 사실 《한시외전》에 인용된 제자서 가운데 《순자》에서 인용한 항목이 모두 44조목이나 된다. 그러므로 송대 왕응린(王應麟)에서 청대 왕중(汪中)과 엄가균(嚴可均)에 이르기까지 《한시외전》은 모두 《순자》에서 나왔다고 여겼던 것이다.

4) 永瑤領銜 纂修, 《四庫全書總目提要》(北京: 中華書局, 2001) 964쪽 인용. “王世貞稱《外傳》引《詩》以證事, 非引事以明《詩》, 其說至確.”

특징은 한영의 문예 사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그가 《시경》의 〈관저(關雎)〉 편과 〈감당(甘棠)〉·〈서리(黍離)〉 편 등에 대한 해석을 가한 부분과 “속마음이 진실하면 바깥에 드러난다.(誠中形外)⁵⁾”는 문학기, “지자요수(知者樂水)”와 “인자요산(仁者樂山)”에 대한 논술 등은 모두 공자(孔子)의 문예 미학관점과 흡사하다. 또 한영의 관점가운데 “음악은 모든 사물을 서로 조화롭게 한다.(音樂相和)”와 “같은 종류의 사물은 서로 감응한다.(物類相感)”는 견해는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의 영향을 받아 잡다하게 섞인 것이다⁶⁾. 그리고 “음악의 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無聲有聲)과 “마음에 응하면 몸을 움직인다.(應心動體)”는 주장 같은 것은 분명 도가(道家)문예사상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본고는 《한시외전》에서 한영이 문예이론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주장하는 문장들을 선역(選譯)하고 상세히 주석을 덧붙인 것이다. 금문(今文)과 삼가 시(詩) 가운데 후세에 유일하게 전하는 한영의 문예관과 문예이론에 관한 견해를 이해하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지 싶다.

2. 번역과 역주

[1]

古者, 天子左五鐘, 右五鐘⁷⁾. 將出⁸⁾, 則撞黃鐘⁹⁾, 而右五鐘皆應之. 馬

5) 성중형외(誠中形外): 《대학(大學)》의 “이것은 내심 깊은 곳이 진실하면 바깥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거할 때를 삼가야 한다.(此謂誠於中, 形於外, 故君子必慎其獨也)”는 데서 나온 말이다.

6) 顧易生, 蔣凡 著, 《先秦兩漢文學批評史》(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418쪽 참조. 이것은 분명 금문과 삼가시(三家詩)의 공통된 특징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대 통치자들의 정치적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참위(讖緯)지류의 신학(神學)사상이 가미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7) 우오종(右五鐘): 옛 판본에는 이 세 글자가 없었는데, 《상서대전(尚書대전)》에서 “천자의 궁궐에는 왼쪽에 오종이 있었고, 오른쪽에도 오종이 걸려 있었다.(天子左五鐘, 右五鐘)”고 했고, 《초학기(初學記)》권16과 《태평어람(太平御覽)》권565에도 “천자의 궁궐에는 왼쪽 오른쪽에 오종이 걸려 있었다.(天子左右五鐘)”고 했으므로 덧붙여 넣어서 번역했다.

8) 장출(將出): 천자께서 장차 출행하려 하다는 의미이다.

9) 당황종(撞黃鐘): “당”은 치다 또는 쳐서 울리다는 의미이다. “황종”은 음악 “육률(六律)”의 하나인데, 《주례(周禮)》에 의하면 양성(陽聲)이다.

鳴中律¹⁰，駕者有文¹¹，御者有數¹²．立則磬折¹³，拱則抱鼓¹⁴，行步中規，折旋中矩．然後太師奏升車之樂，告出也．入則撞蕤賓¹⁵，而左五鐘皆應之¹⁶，以治容貌．容貌得則顏色齊¹⁷，顏色齊則肌膚安¹⁸．蕤賓有聲，鵠震¹⁹馬鳴，及僕介之蟲²⁰，無不延頸以聽．在內者皆玉色²¹，在外者皆金聲²²．然後少師奏升堂之樂，即席告入也．此言音樂²³相和，物類相感，同聲相應之義也．《詩》云：“鐘鼓樂之²⁴．”此之謂也．(1권 16장)

[1]

옛날에 천자의 궁궐에는 왼쪽에 오종이 있었고, 오른쪽에도 오종이

-
- 10) 중률(中律): 음률에 맞다 또는 음률에 부합하다는 의미이다.
 11) 가자유문(駕者有文): “가자”는 수레를 모는 사람이란 뜻이고, “문”이란 우아하다는 뜻이다.
 12) 유수(有數): 구체적인 표상(表象)이 있다 또는 예의가 있다는 의미이다.
 13) 입즉경절(立則磬折): 직역하면 서면 꺾인 경쇠와 같다는 것이지만, 이 구절은 서면 꺾인 경쇠와 같아서 공경하게 허리를 굽히고 앞을 향하는듯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14) 공즉포고(拱則抱鼓): 직역하면 두 손을 마주잡고 인사하면 북을 안은 것과 같다는 것이지만, 이 구절은 두 손을 마주잡고 인사하면 북을 안은 것과 같아서 두 팔을 펴서 둥근 형태를 이룬듯하다는 의미이다.
 15) 유빈(蕤賓): 음악 “육률”의 하나인데, 《주례》에 의하면 양성(陽聲)이다.
 16) 이좌오종개응지(而左五鐘皆應之): 이 구절도 옛 판본에는 없었는데, 《상서대전》에는 이 일곱 글자가 있고, 앞의 문장 구조에서도 나란히 언급되어 있으므로 덧붙여서 번역했다.
 17) 용모득즉안색제(容貌得則顏色齊): “용모득”은 용모가 타당함을 얻다는 의미이고, “안색제”는 안색이 가지런하다 또는 안색이 온화하고 기쁘다는 뜻이다.
 18) 기부안(肌膚安): 이곳의 “피부”는 몸이나 신체를 가리키므로 이 구절은 몸이 편안하다는 뜻이다.
 19) 곡진(鵠震): 고니가 날개를 펴다는 의미이다.
 20) 나개지충(僕介之蟲): “나”는 갓털이나 비늘 같은 것이 없는 별거벗은 알몸의 곤충이고, “개”는 딱지나 단단한 껍질의 곤충을 가리킨다.
 21) 재내자개옥색(在內者皆玉色): 천자 몸의 피부는 모두 윤택한 옥색이라는 의미이다.
 22) 재외자개금성(在外者皆金聲): 몸 바깥은 모두 금속 악기의 장엄하면서도 공손한 소리라는 뜻이다.
 23) 음악(音樂): 《상서대전》에는 지극한 즐거움인 “지락(至樂)”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는 통하겠지만, 앞뒤 문맥과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음악”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24) 이 《시경》 구절은 〈주남(周南)·관저(關雎)〉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걸려 있었다. 천자께서 출행하시려 할 때 황종 음률의 종을 쳐서 올리면 오른쪽의 오종도 모두 쳐서 올려 그것에 응하였다. 이때 말의 우는 소리는 음률에 부합하고 수레를 모는 사람의 태도는 우아하며, 어거하는 사람은 예의가 있었다. 그들이 서면 꺾인 경쇠와 같아서 공경하게 허리를 굽히고 앞을 향하는 듯했고, 두 손을 마주잡고 인사하면 북을 안은 것과 같아서 두 팔을 펴서 둥근 형태를 이룬 것처럼 보였으며, 걷는 걸음은 규(規)에 부합되었고, 꺾어 도는 것은 구(矩)에 부합되었다. 이렇게 한 후에 음악을 책임 맡은 태사는 수레에 오르는 음악을 연주하여 천자의 출행을 알렸다. 천자께서 조정에 들어오시려 할 때 유빈 음률의 종을 쳐서 올리고, 왼쪽의 오종도 모두 쳐서 올려 그것에 응하면, 천자께서도 용모를 단장하였다. 용모 단장이 온당하면 안색이 가지런하게 되고, 안색이 가지런하게 되면 몸도 편안해진다. 유빈 음률의 종이 소리를 발하면 고니도 날개를 펼치고, 말도 울며, 각종 깃털과 비늘 및 딱지가 없는 곤충들도 목을 쪽 뻗 채 조용히 듣지 않음이 없었다. 천자 몸의 피부는 모두 윤택한 옥색이었고, 몸 바깥은 모두 금속 악기의 장엄하면서도 공손한 소리 같았다. 이런 후에 음악을 관장하는 소사는 조정에 오르는 음악을 연주하여 곧 천자께서 조정에 들어오시려는 것을 알린다. 이것은 음악이 모든 일을 서로 조화시키는 작용이 있고, 같은 사물은 서로 느끼고, 같은 소리의 악기도 서로 응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시경》〈주남·관저〉편에서 “종과 북을 울려 그를 즐겁게 하리.”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2]

傳²⁵⁾曰：水濁則魚喁²⁶⁾，令苛則民亂。城峭則崩，岸峭則陂。故吳起峭刑而車裂²⁷⁾，商鞅峻法而支解²⁸⁾。治國者，譬若乎張琴²⁹⁾然，大絃急³⁰⁾則小絃

25) 전(傳): 직역하면 전하는 데서라는 것이지만, 옛 책을 가리킨다.

26) 웅(喁): 《회남자(淮南子)》〈무칭(繆稱)〉편에는 “엄(噉)”자로 되어 있고, 《설원(說苑)》〈정리(政理)〉편에는 “곤(困)”자로 되어 있다. 동한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구부(口部)에서 “웅은 물고기 입이 위로 보이는 것이다.”(喁, 魚口上見)고 했으므로 “웅”과 “엄”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설원》의 “곤”자도 의미는 통한다.

27) 오기초형이거열(吳起峭刑而車裂): “오기”에 대해 《사기(史記)》권65 <손자 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 제5에 실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衛)나라 사람인데, 사람됨이 시기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오기는 노(魯)나라에 가서 병법(兵法)을 배우고 노나라 임금(魯君)을 섬겼다. 후에 오기는 위(魏)나라 문후(文侯)가 현명하다는 것을 듣고는 위나라로 가서 그를 섬기고자 하였는데, 위 문후의 현신(賢臣)인 이극(李克)이 병법이 사마양저(司馬穰苴)보다 병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 뛰어나다는 말에 오기는 위 문후의 대장군이 되어 진(秦)나라를 공격해서 성(城) 다섯을 함락시켰다. 오기는 위나라에서 대장군으로 있으면서 가장 낮은 병사와 같이 입고 먹으며 부드러운 요나 깔개를 깔지 않고 잤고, 행군할 때도 말을 타거나 수레를 타지 않았으며, 친히 남은 군량미를 묶어 썼고, 병사들의 노고를 분담하였으며, 악창이 난 병사의 고름을 입으로 핥아 빨아 낼 정도였다. 연저지인(吮疽之仁)하는 부하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감동시켰다. 이에 위나라 문후는 오기가 용병(用兵)을 잘하고, 청렴하고 공정하여 장수와 사병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서 서하(西河)의 태수로 삼아 진(秦)나라와 한(韓)나라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위 문후가 죽은 후 그의 아들 무후(武侯)를 섬겼고, 후에 전문(田文)이 재상이 되었는데, 전문이 죽자 공숙(公叔)이 재상이 되어 위(魏)나라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오기를 두려워하며 꺼렸다. 이에 오기는 자신에게 징벌이 내릴 것을 두려워하여 초(楚)나라로 갔다. 초나라 도왕(悼王)은 평소 오기의 현능(賢能)함을 들었으므로 초나라에 오자마자 그를 재상으로 삼았다. 오기는 초나라에서 법규를 살피고 정해서 긴요하지 않은 관리를 줄이고, 소원한 왕족의 공양(供養)을 폐지하고 도리어 병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우대하였다. 병력을 강성하게 하고 함부로 유세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는 백월(百越)을 평정하고 북쪽으로는 진(陳)나라와 채(蔡)나라를 병탄(併吞)하였으며, 삼진(三晉)의 군대를 격퇴시켰고, 서쪽으로는 진(秦)나라를 도벌하였다. 오기로 부터 버림당했던 초나라 왕족들은 진작부터 오기를 해칠 기회를 틈타고 있었는데, 초나라 도왕이 죽자 그들은 마침내 대신들과 합세해서 오기를 공격하였다. 오기는 도왕의 시신 옆에 도망가 었드렸는데, 오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 오기를 쏘아 죽였고, 도왕의 시신까지 쏘았다. 결국 초나라에서 집정할 때 행한 각박하고 비정함으로 인해 오기는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권65 <손자오기열전> 제5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오기는 “거열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상앙에게 거열형을 시행했다는 기록은 분명히 보인다.

28) 상앙준법이지해(商鞅峻法而支解): “상앙”에 대해 《사기》권68 <상군열전(商君列傳)》 제8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위(衛)나라 임금 희첩(姬妾) 소생의 공자(公子)로 이름은 양(鞅)이었고 성은 공손(公孫)이었다. 공손양은 젊어서 형명(刑名)과 법술(法術)의 학문을 좋아하여 위(魏)나라 재상 공숙좌(公叔座)를 섬겨 중서자(中庶子)가 되었다. 공숙자가 죽은 후 공손양은 진(秦)나라 효공(孝公)이 전국에 명을 내려 재능있는 사람들을 탐방하여 구한다는 것을 듣고는 서쪽 진나라에 들어가 효공의 충신인 성이 경(景)씨인 태감(太監)의 소개로 효공을 뵈었다. 효공은 공손양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침내 법도를 바꾸려고 하였으나 백성들이 자신을 의론할까 두려워하며 주저하였다. 이에 공손

絶矣. 故急轡御者³¹⁾, 非千里之御也. 有聲之聲³²⁾不過百里, 無聲之聲延及四海. 故祿過其功者削, 名過其實者損, 情行合名³³⁾, 禍福不虛至矣. 《詩》

양은 나라를 강성하게 하려면 진부한 법규를 본받을 필요가 없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면 옛 제도를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음을 역설하자 효공은 마침내 좋다고 하였다. 상양은 그들의 의견에 상나라 탕(湯)임금과 주나라 무왕(武王)이 옛 법제를 따르지 않고 천하를 통일한 것, 하나라 곽(桀)왕과 은나라 주(紂)임금이 옛 예(禮)를 개혁하지 않고 망한 예들을 통해 철저히 설득시켜 나갔다. 신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갖가지 폐단도 속출했지만, 그럴 때마다 상양은 위에서부터 법에 접촉하기 때문이라며 법에 따라 태자를 처리하려 하였다. 하지만, 태자는 장차 왕의 자리를 이을 사람이므로 신법의 연좌(連坐)제에 따라 태부(太傅) 공손건(公孫虔)을 법대로 처리하였고, 태사(太師) 공손가(公孫賈)에게는 묵형(墨刑)을 행하였다. 이렇게 단호하게 신법을 시행하자 진나라 사람들은 그 이튿날부터 모두 신법을 받들어 행하였다. 이에 상양을 대량조(大良造)로 삼아 위(魏)나라의 안읍(安邑)을 침공하게 하여 그들을 항복시켰다. 제(齊)나라가 마릉(馬陵)전투에서 위(魏)나라를 패퇴시키고, 태자 신(申)을 포로로 잡고 방연(龐涓)을 죽여 버리는 기회를 틈타 상양은 효공에게 권하여 위(魏)나라를 침공하여 진나라를 강성하게 하자고 하였다. 이에 진 효공도 동의하여 상양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위나라를 침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나라도 공자양(公子卬)에게 명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게 하였다. 두 군대가 대치했을 때, 상양은 위나라 장수 공자양에게 편지를 보내 차마 서로 죽일 수 없으니 대면하여 맹약을 맺고 기분 좋게 술 마신 후 철군(撤軍)하여 진과 위나라가 서로 안전하게 잘 지냈으면 한다고 하였다. 진나라에 돌아온 상군은 상읍(商邑)으로 도망가서 그의 하숙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북쪽 정(鄭)나라를 침공하였다. 진나라는 군대를 동원하여 상군을 쳐서 정나라의 면지(肥池)에서 그를 사살했다. 진 혜왕(惠王)은 상군을 거열형인 사지를 다섯 수레에 묶어 찢어 죽여서 공개적으로 못 사람들에게 보였고 상군처럼 모반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울러 상군의 전 가족을 죽여 버렸다.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각박(刻薄)했던 상군은 진나라 효공에게 유세할 때부터 진실하지 않았고, 충애하는 경 태감의 추천으로 등용되었으며, 공자건을 처벌하였고, 위나라 장수 공자양을 속이고, 조량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상군이 각박하고 은덕 베풀이 적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진나라에서 모반한다는 악명을 얻은 것도 그의 사람됨이 빚은 결과일 것이다.

29) 장금(張琴): “장”자는 당기다는 의미이므로 금(琴)의 현을 당기다는 뜻이다.

30) 급(急): 당기다 또는 비틀다는 의미이다.

31) 급비어자(急轡御者): 말고삐를 팽팽하게 당겨서 모는 것을 가리킨다.

32) 유성지성(有聲之聲): 직역하면 소리가 있는 소리이지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의미한다.

33) 정행합명(情行合名): 원문에는 본문처럼 되어 있지만, 《회남자》〈무칭〉편과 《설원》〈정리〉편에는 모두 “情行合而名副之”로 되어 있으므로 고쳐서 번역했다.

曰: “何其處也? 必有與也. 何其久也? 必有以也.”³⁴⁾ 故惟其無爲³⁵⁾, 能長生久視, 而無累於物矣. (1권 23장)

[2]

옛 책에서 물이 탁하면 물고기가 입을 벌름거리고, 정령(政令)이 가혹하면 백성들은 어지럽게 된다. 성이 가파르면 붕괴되고, 언덕이 가파르면 무너진다. 그러므로 오기는 형벌을 가혹하게 했다가 거열(車裂)형에 처해졌고, 상양도 법을 준엄하게 했다가 사지가 찢기고 말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비유컨대 마치 금(琴)의 현을 당기는 것과 같아서 큰 현을 너무 단단하게 비틀면 작은 현은 끊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말고삐를 팽팽하게 당겨서 모는 것은 천리를 달리는 숙련된 마부가 아니다. 소리가 있는 소리인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백리까지 전하는데 불과하고, 소리가 없는 소리인 들을 수 없는 소리는 사해까지 퍼져 나간다. 그러므로 봉록이 그 공적보다 많은 사람은 깎이게 되고,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친 사람은 결손이 나게 마련이며, 사상과 행위가 일치해야 하고 명성과 실체가 부합해야 하며, 화와 복은 헛되이 이르지 않는다. 《시경》〈패풍·모구〉편에서 “어찌하여 그곳에 편안히 거하며 나오지 않는가? 반드시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로다. 어찌하여 그렇게 오래 끄는가? 반드시 원인은 그곳에 있을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오로지 인위적으로 함이 없어야 오래 살고 오래 볼 수 있으며, 영화나 부귀 같은 바깥 사물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3]

傳曰: 衣服容貌者, 所以說³⁶⁾目也. 應對言語者, 所以說耳也. 好惡去就者, 所以說心也. 故君子衣服中³⁷⁾, 容貌得³⁸⁾, 則民之目悅矣. 言語遜, 應對

34) 이 구절은 《시경》〈패풍(邶風)·모구(旄丘)〉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35) 무위(無爲):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도 도가 문예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36) 열(說): “열(悅)”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아래 구절의 “열이(說耳)”나 “열심(說心)”도 동일한 용법이다.

給³⁹⁾, 則民之耳悅矣. 就仁去不仁, 則民之心悅矣. 三者存乎身⁴⁰⁾, 雖不在位, 謂之素行. 故中心存善⁴¹⁾, 而日新之⁴²⁾, 則獨居而樂, 德充而形⁴³⁾. 《詩》曰: “何其處也, 必有與也. 何其久也, 必有以也.” (1권 24장)

[3]

옛 책에서 의복과 용모는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대답과 언어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며 떠나고 나아가는 것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옷을 입음이 알맞고 용모가 적합하게 단장되었으면 백성의 눈은 즐거울 것이다. 언어가 겸손하고 대답이 민첩하면 백성의 귀가 즐거울 것이다. 어진데 나아가고 어질지 않는 것을 떠난다면 백성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몸에 보존하고 있으면 비록 관직에 있지 않더라도 순결하고 고상한 행위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선량한 것을 보존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면 홀로 거하더라도 즐겁고, 덕은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시경》〈패풍·모구〉편에서 “어찌하여 그곳에 편안히 거하며 나오지 않는가? 반드시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로다. 어찌하여 그렇게 오래 끄는가? 반드시 원인은 그곳에 있을 터이로다!”라고 하였다.

[4]

凡治氣養心之術, 莫徑由禮, 莫優得師, 莫愼一好. 好一則搏⁴⁴⁾, 搏則精,

37) 중(中): 알맞다는 의미이다.

38) 득(得):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39) 급(給): 민첩(敏捷)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유협(劉鑾)의 《문심조룡(文心雕龍)》〈재략(才略)〉편을 보면 “반악은 민첩해서 문사도 자연히 부드럽고 막힘이 없다.”(潘嶽敏給, 辭自和暢.)라는 예가 보인다.

40) 신(身): 《설원》〈수문(修文)〉편에는 “심(心)”자로 되어 있고, 이 구절 아래에는 “暢乎體, 形乎動靜”이라는 일곱 글자가 더 덧붙여 있다.

41) 중심존선(中心存善): 《설원》〈수문〉편에는 “중(中)”자가 “충(忠)”자로 되어 있고, “존(存)”자도 “호(好)”자로 되어 있다.

42) 이 구절의 “신(新)”자도 원대 판본에는 “친(親)”자로 되어 있는데, 고대에는 두 글자가 통용되었다.

43) 즉독거이락, 덕충이형(則獨居而樂, 德充而形): “즉(則)”자가 원대 판본에는 “고(故)”자로 되어 있다. 이 구절이 《설원》〈수문〉편에는 “獨居樂德, 內悅而形”으로 되어 있다.

精則神, 神則化⁴⁵⁾. 是以君子務結心乎一⁴⁶⁾也. 《詩》曰: “淑人君子⁴⁷⁾, 其儀⁴⁸⁾一兮. 其儀一兮, 心如結兮.”⁴⁹⁾ (2권 31장)

[4]

무릇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예로 말미암는 방법보다 더 지름길은 없고, 스승을 얻는 것보다 더 우수한 것은 없으며, 하나같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신중한 것은 없다. (시종(始終))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점차 전문적이고 깊은 것을 배우게 되고, 전문적이고 깊은 것을 배우게 되면 정통하게 되며, 정통하게 되면 신묘막측(神妙莫測)한 경계에 까지 들어가게 되고, 신묘막측한 경계에 까지 들어가게 되면 도와 하나가 된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힘쓰고 전심전력하여 하나인 도(道) 좋아하는 것을 구하게 된다. 《시경》〈조풍·시구〉편에서 “재덕(才德)을 겸비한 선한 군자, 그 언행이 한결같네. 그 언행이 한결같으니 충성스런 마음이 빛나고 경쇠처럼 단단하네.”라고 하였다.

[5]

劍雖利, 不厲不斷. 材雖美, 不學不高. 雖有旨酒嘉穀, 不嘗不知其旨. 雖有善道, 不學不達其功⁵⁰⁾. 故學然後知不足, 教然後知不究⁵¹⁾. 不足, 故自愧而勉. 不究, 故盡師而熟⁵²⁾. 由此觀之, 則教學相長也. 子夏問《詩》, 學

44) 박(搏): 찾아내어 붙잡다 또는 청대 왕념손(王念孫)의 주장대로 “전(專)”자와 같은 의미인 전문적이고 깊다[專深]는 의미이다.

45) 화(化): 도(道)와 화하여 하나가 되다는 의미이다.

46) 무결심호일(務結心乎一): 직역하면 힘써 하나를 마음에 보관하다 또는 힘써 하나를 마음에 쌓다라는 의미이지만, 힘쓰고 전심전력하여 하나인 도(道) 좋아하는 것을 구하게 되다는 뜻이다.

47) 숙인군자(淑人君子): “숙인”은 “선인(善人)”과 같은 의미이고, “군자”는 재덕을 겸비한 사람을 가리킨다.

48) 의(儀): 언행(言行)을 가리킨다.

49) 이 구절은 《시경》〈조풍(曹風)·시구(鵲鳴)〉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50) 부달기공(不達其功): 이 구절은 그 공력(功力)이 (정심(精深)한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51) 불구(不究): 이해가 깊지 않고 철저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一以知二⁵³⁾. 孔子曰: “起予者, 商也. 始可與言《詩》已矣!⁵⁴⁾” 孔子賢乎⁵⁵⁾英傑而聖德備, 弟子被光景而德彰⁵⁶⁾. 《詩》曰: “日就月將,⁵⁷⁾” (3권 15장)

[5]

칼이 비록 예리하다 해도 갈지 않으면 끊지 못한다. 재주가 비록 훌륭하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높아지지 못한다. 비록 좋은 술과 훌륭한 안주가 있더라도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설령 훌륭한 도리가 있다 해도 배우지 않으면 그 공력(功力)이 (정심(精深)한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배운 연후에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친 연후에야 자신의 이해가 깊지 않고 철저하지 못함을 알게 된다. 부족하므로 스스로 부끄러워서 힘쓰게 된다. 이해가 깊지 않고 철저하지 못함을 알므로 스승의 가르침을 다하고 숙련되게 하려고 한다. 이로써 보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서로 성장하게 한다. 자하가 《시경》을 물어 하나를 배우고 둘을 알게 되었다. 공자께서 (칭찬하여) “나

52) 진사이숙(盡師而熟): 예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도리를 전부 이해하고 숙련되게 하다는 의미이다.

53) 학일이지이(學一以知二): 직역하면 하나를 배우고 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시경》에 관한 하나의 질문을 통해 도리어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54) 《논어(論語)》〈팔일(八佾)〉 편에서 인용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하(子夏)가 “보조개가 있는 얼굴에 웃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흑백이 분명한 눈매시가 얼마나 고운가, 흰 바탕의 천에 꽃으로 채색되어 있구나!” 이 시는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자, 공자께서 “그림 그리는 일은 먼저 흰 바탕이 있는 후에 꽃을 그린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자하(子夏)가 “그렇다면 예악(禮樂)은 인의(仁義) 뒤에 온다는 말입니까?”라고 하자, 공자께서 “나를 일깨워 주는 사람은 상이구나!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경》을 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였다.(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 商也! 始可與言詩已矣.”)

55) 호(乎): 비교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56) 피광경이덕창(被光景而德彰): “피”자는 입다 또는 받다는 의미이고, “광경”은 스승 공자 덕의 빛을 가리키며, “창”은 빛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 공자의 덕의 광채를 입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품행과 덕까지 제고시켰다는 의미이다.

57) 이 구절은 《시경》〈주송(周頌)·경지(敬之)〉 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를 일깨워주는 사람은 상이로구나!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경》을 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였다. 공자는 영걸보다 현명하고 성인의 덕행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제자들은 그의 빛을 입어서 덕도 빛나게 된 것이다. 《시경》〈주송·경지〉편에서 “날로 나아가고 달로 성장하네.”라고 하였다.

[6]

問者曰: “夫智者何以樂於水也?” 曰: “夫水者緣理而行⁵⁸⁾, 不遺小間⁵⁹⁾, 似有智者; 動而下之⁶⁰⁾, 似有禮者; 蹈深不疑, 似有勇者; 障防而清⁶¹⁾, 似知命者; 歷險致遠, 卒成不毀⁶²⁾, 似有德者. 天地以成, 羣物以生, 國家以平, 品物以正. 此智者所以樂於水也.” 《詩》曰: “思樂泮水, 薄采其茆. 魯侯戾止, 在泮飲酒.⁶³⁾” 樂水之謂也. (3권 25장)

[6]

묻는 사람이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물을 좋아 합니까?” 라고 하니, “무릇 물은 이치에 따라 흐르되 작은 틈도 빠트리지 않음은 마치 지혜를 가진 사람 같고, 흐르면서 곧장 아래로 향하는 것은 예의를 갖춘 사람 같으며, 깊은 곳을 밟되 주저하지 않는 것은 용감한 자 같고, 가로막으면 맑아지는 것은 천명(天命)을 아는 것 같으며, 험한 곳을 지나 먼 곳까지 이르되 마침내 이루고 허물어뜨림이 없으니 덕을 가진 자와 같다. 천지는 그것으로 이루고, 못 사물은 그것으로 살아가며,

58) 연리이행(緣理而行): “연”자는 “유(由)”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이 구절은 이치에 따라 흐르다는 것이다.

59) 불유소간(不遺小間): 본 구절이 《설원》〈잡문(雜文)〉 편과는 동일하지만, 《예문류취(藝文類聚)》권8에는 “간(間)”자가 없고, 《태평어람(太平御覽)》권59에는 “유(遺)” 밑에 “대(大)”자가 있고, “간(間)”자가 없다.

60) 하지(下之): 옛 판본에는 본문처럼 되어 있지만, 조희옥(趙懷玉)의 《한시외전교(韓詩外傳校)》에는 “지하(之下)”로 되어 있다. 사실 “하지”보다는 “지하”가 문법적으로 더 타당하고 의미과약도 하기 쉽다.

61) 장방이청(障防而清): 가로막으면 맑아지다는 뜻이다.

62) 졸성불훼(卒成不毀): 이 네 글자가 《예문류취》권8과 《태평어람》권59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역주자는 그대로 번역했다.

63) 이 구절은 《시경》〈노송(魯頌)·반수(泮水)〉 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국가는 그것으로 평안하고 각종 사물은 그것으로 바르게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물을 좋아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시경》〈노송·반수〉편에서 “반수가 얼마나 즐거운가! 사람들 순채를 뜯네. 노후(魯侯)의 큰 수레 이미 이르러, 반수 가에서 술 드시네.”라고 한 것은 물을 좋아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7]

問者曰：“夫仁者何以樂於山也?” 曰：“夫山者萬民之所瞻仰也。草木生焉，萬物植⁶⁴⁾焉，飛鳥集焉，走獸休焉⁶⁵⁾，四方益取與焉⁶⁶⁾。出雲道風⁶⁷⁾，崧乎天地之間。天地以成，國家以寧，此仁者所以樂於山也。”《詩》曰：“太山巖巖，魯邦所瞻⁶⁸⁾” 樂山之謂也。(3권 26장)

[7]

묻는 사람이 “무릇 어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산을 좋아 합니까?”라고

64) 식(植): “식(殖)”자와 같은 의미인 번식하다는 뜻이다.

65) 이 구절 바로 밑에 《예문류취》권8에는 “만물을 토해내어 살게 하지만 사사로움이 없다.(吐生萬物而不私焉)”는 여덟 글자가 덧붙여 있다.

66) 사방익취여언(四方益取與焉): 이 구절의 “익(益)”자는 옹당 “병(並)”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설원》〈잡언(雜言)〉편에서 “사방에서 두루 취해도 제한이 없다.(四方並取而不限焉)”고 했고, 《상서대전(尙書大傳)》에는 “사방에서 모두 치다.(四方皆伐焉)”고 했는데, “병”과 “개”는 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본역주자도 원문대로 번역하면 “사방에서 취하고 더부는 것을 이롭게 한다.”가 되어 앞뒤 문맥이 통하지 않으므로 “익”자를 “병”자의 의미로 번역했다.

67) 출운도풍(出雲道風): 이 구절을 직역하면 “구름은 그곳으로부터 나오고 바람은 그곳을 지나며”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의 “도(道)”자가 《설원》〈잡언〉편에는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고, 두루 천지간의 큰 기운을 통하게 하다.(出雲風通氣於天地之間)”라고 하였고, 《상서대전》에서 “구름과 바람을 내고 천지사이에 통한다.(出風雲以通乎天地之間)”고 했으므로 본문의 “도(道)”자는 옹당 “통(通)”자로 고쳐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본역주자는 《설원》〈잡언〉편의 의미대로 번역했다.

68) 이 구절은 《시경》〈노송·비궁(闕宮)〉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현전하는 《시경》〈노송·비궁〉편을 보면 몇 글자간의 출입이 있다. 즉 “太山巖巖，魯邦所瞻”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설원》〈잡언〉편에도 “太山巖巖，魯侯所瞻”으로 되어 있다.

하니, “무릇 산은 만민이 바라보고 우러르는 대상이다. 초목은 그곳에서 자라고, 만물은 그곳에서 번식하며, 날짐승은 거기에 모여들고, 들짐승은 거기에서 쉬며, 사방에서 두루 취하고 더분다.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고, 두루 천지사이의 큰 기운을 통하게 하며, 천지공간에 우뚝 서 있다. 천지는 그것으로 이루고, 국가는 그것으로 평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물을 좋아하는 까닭이다.”고 하였다. 《시경》〈노송·비궁(闕宮)〉 편에서 “높고 힘준하게 하늘에 닿아 있는 태산, 노나라 사람들 가장 존중하고 우러러 받드네.”라고 한 것은 산을 좋아한 것을 말한 것이다.

[8]

問楷者不告, 告楷者勿問⁶⁹⁾. 有諍氣者勿與論. 必由其道至⁷⁰⁾, 然後接之. 非其道, 則避之. 故禮恭然後可與言道之方, 辭順然後可與言道之理, 色從然後可與言道之極. 故未可與言而言謂之瞽, 可與言而不與之⁷¹⁾言謂之隱. 君子不瞽不隱⁷²⁾, 謹慎其序⁷³⁾. 《詩》曰: “彼⁷⁴⁾交匪紆, 天子所予.⁷⁵⁾” 言

69) 문고자불고, 고고자물문(問楷者不告, 告楷者勿問): 이 두 구절에 “고(楷)”자가 원래는 탈락되고 없었는데, 이 두 글자가 없으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자(荀子)》〈권학(勸學)〉 편을 근거로 보충해 넣어서 번역했다. 양경(楊倞)은 주석에서 “고는 악이다. 문고는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을 말한다.(楷, 惡也. 問楷, 謂所問非禮義也.)”고 했다. “고”는 추하고 악하여 예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70) 필유기도지(必由其道至): 직역하면 반드시 그 도로 말미암아 이르다는 것이지만, 의미는 반드시 그가 도덕과 학문을 추구하기 위해 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71) 지(之): 옛 판본에는 탈락되어 없지만, 《순자》〈권학〉 편을 근거로 보충해 넣어서 번역했다.

72) 불은(不隱): 옛 판본에는 탈락되어 없지만, 《순자》〈권학〉 편을 근거로 보충해 넣어서 번역했다.

73) 근신기서(謹愼其序): 옛 판본에는 “言謹其序”로 되어 있는데, 원대(元代)판본 이후부터는 “言謹愼其序”로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 허유흔은 “언(言)자는 앞 문장에 관련된 연문이고, 본래는 아마도 ‘신(愼)’자가 있었던 것이 옳다. 《순자》〈권학〉 편에는 ‘謹順其身’으로 되어 있고 는데, ‘언(言)’자는 없다. ‘신(愼)’자와 ‘순(順)’자는 옛날에 통용했으므로 송대(宋代) 판본 《순자》에 따라 ‘순(順)’자를 ‘신(愼)’자로 한다.(‘言’字涉上文而衍, 本或有‘愼’字, 是. 《荀

必交吾志然後予. (4권 16장)

[8]

물음이 (추(醜)하거나 악(惡)하여) 예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알려주지 말고, (추하거나 악하여) 예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면 묻지를 말아라.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사람은 더불어 변론하지 말라. 반드시 그가 도덕과 학문을 추구하기 위해 오는 것을 안 연후에 그를 맞이한다. 그가 도덕과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그를 피해버려라. 그러므로 예모(禮貌)가 공경스러운 연후에야 더불어 도(道)의 큰 방향을 토론할 수 있고, 말이 도리에 맞은 연후에야 더불어 도의 이치를 논할 수 있으며, 얼굴빛이 차분해진 연후에야 더불어 도의 지극함을 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데 말하는 것을 맹목적이라 하고, 더불어 말할 수 있는데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고 한다. 덕이 있는 군자는 맹목적이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으며 삼가 그 순서를 신중히 한다. 《시경》〈소아·채숙〉편에서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좋은 풍채, 천자께서 상으로 내릴 것이로세.”라고 한 것은 반드시 나의 뜻에 부합된 연후에야 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

[9]

然則楚之狂者楚言, 齊之狂者齊言? 習使然也. 夫習之於人微而著, 深而固. 是暢於筋骨⁷⁶⁾, 貞於膠漆⁷⁷⁾. 是以君子務爲學⁷⁸⁾也. 《詩》曰: “既見君

子》〈勸學〉篇作‘謹順其身’, 無‘言’字. ‘愼’‘順’古通用, 故宋本《荀子》‘順’作‘愼’”고 했다. 그러므로 본역주자도 “언”자를 빼고 “順”자를 “愼”자로 바꾸어서 번역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삼가 사람 태도의 순서를 신중히 한다는 것이다.

74) 피(彼): 《순자》〈권학〉편에는 “비(匪)”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청대 왕인지(王引之)는 ““비(匪)”자로 하는 것이 옳은데, ‘피’자로 한 것은 가차로 사용한 것이다.(作‘匪’者正字, 作‘彼’者假借字也.)”고 하였다.

75) 이 구절은 《시경》〈소아(小雅)·채숙(采菽)〉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76) 창어근골(暢於筋骨): “창”자는 통하다 또는 펼쳐져 있다는 의미이다. “근골”은 근육과 뼈라는 의미에서 온몸이나 뼑속이라는 뜻이다.

77) 정어교칠(貞於膠漆): “정”자는 곧다 또는 굳다는 의미이다. “교칠”은 아교를

子, 德音孔膠^{79).80)}”(4권 26장)

[9]

그런즉 초나라의 미치광이는 왜 여전히 초나라 말을 하고, 제나라의 미치광이는 어찌하여 제나라 말을 하는가? 습관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무릇 습관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작은 것 같으나 드러나고, 깊으면서도 단단해서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온몸 뻗속 깊이 통해 있고, 아교를 칠한 것처럼 굳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배우기를 힘쓰는 것이다. 《시경》〈소아·습상〉편에서 “만약 내 부군(夫君)을 만났다면, 서로 내심을 털어놓는 말 의기투합했겠지.”라고 하였다.

[10]

僞詐不可長, 空虛不可守, 朽木不可雕, 情忘⁸¹⁾不可久. 《詩》曰: “鼓鐘⁸²⁾于宮, 聲聞于外.⁸³⁾” 言有中者⁸⁴⁾必能見外也. (4권 31장)

[10]

거짓과 속임은 오래 갈 수 없고, 텅 빈 것은 지킬 수 없으며,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정감이 없으면 오래 수 없다. 《시경》〈소아·백화〉편에서 “궁정에서 큰 종을 두드리면, 그 소리는 바깥에까지 들리

칠하다는 뜻이다.

78) 위학(爲學): 학문을 하다는 의미이다.

79) 덕음공교(德音孔膠): 《시경》에 사용한 “덕음”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덕스런 소리로 좋은 명성이나 명예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듣기 좋은 소리인데, 부부지간에 내심을 털어놓고 하소연하며 의기투합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문의 “덕음”은 후자를 가리키는 용례의 하나이다. “공교”는 단단하다 또는 굳다는 의미이다.

80) 이 구절은 《시경》〈소아·습상(隰桑)〉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81) 망(忘): 잃어버리다로 해도 되고, “망(亡)”자의 의미로 없다는 뜻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

82) 고종(鼓鐘): 큰 종을 두드리다는 의미이다.

83) 이 구절은 《시경》〈소아·백화(白華)〉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84) 유중자(有中者):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이다.

네.”라고 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11]

子夏問曰：“〈關雎〉⁸⁵⁾何以爲〈國風〉⁸⁶⁾始也？”孔子曰：“〈關雎〉至矣乎！夫〈關雎〉之人，仰則⁸⁷⁾天，俯則地，幽幽冥冥⁸⁸⁾，德之所藏，紛紛沸沸⁸⁹⁾，道之所行，如神龍變化⁹⁰⁾，斐斐文章。大哉〈關雎〉之道也，萬物之所繫，羣生之所懸命⁹¹⁾也，河洛出《書》《圖》⁹²⁾，麟鳳翔乎郊⁹³⁾。不由

85) 〈관저〉(〈關雎〉): 《시경》〈국풍·주남〉의 첫째 편 이름이다.

86) 〈국풍〉(〈國風〉): 《시경》에 나오는 15나라의 민간에서 채록한 시를 가리킨다.

87) 척(則): 본받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88) 유유명명(幽幽冥冥): 그윽하고 심원하다는 의미이다.

89) 분분비비(紛紛沸沸): (시의 곡조가)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끓듯이 솟구치다는 의미이다.

90) 여신룡변화(如神龍變化): 원본에는 본문처럼 되어 있고, 원대 판본에는 “如神龍化”로 되어 있지만, 본 역주자가 《한시외전》문론을 선역(選譯)할 때 저본으로 삼은 장소강(張少康), 노영린(盧永璘)이 편선(編選)한 《선진양한문론선(先秦兩漢文論選)》(북경: 인민문학출판사, 1996)에서는 허한(許瀚)의 설을 근거로 “雖神龍化”로 고쳐서 이해하고 있다. 그 근거는 “유유명명”에서 “비비문장”까지 여섯 구절은 “장(藏)”자와 “행(行)”, “장(章)”을 운(韻)으로 삼은 네 글자 구절인데, 이곳만 다섯 글자로 한 것은 전체 구절에서도 옳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역주자도 “雖神龍化”의 의미로 번역했다. 이렇게 할 때 “수”자는 발어사인 “유(唯)”자의 의미이다.

91) 현명(懸命): 운명을 기탁하다는 의미이다.

92) 하낙출《서》《도》(河洛出《書》《圖》):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가리킨다. “하도”와 “낙서”는 고대 유가(儒家)에서 《주역》에 나오는 괘(卦)의 형상과 《상서》〈홍범(洪範)〉에 나오는 “구주(九疇)” 창작과정에 관한 전설의 하나이다. 《주역》〈계사(繫辭)〉상을 보면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왔는데, 성인이 그것을 모범으로 삼았다(河出圖，洛出書，聖人則之)”고 하였다. 한대 안국(孔安國)과 유흠(劉歆)의 해설에 의하면 복희씨 때에 황하에서 용마(龍馬)가 나왔는데, 말의 등에 소용돌이 모양의 털이 마치 별을 점찍어 놓은 듯한 그림을 형성하고 있어서 ‘용도(龍圖)’라고 불렀다. 후에 복희씨는 그것을 본떠서 팔괘를 그리고 점치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낙수”에 대해 한대 공안국과 유흠의 해설에 의하면 하(夏)나라의 우(禹)임금이 치수를 할 때 낙수에서 기이한 거북이가 나왔는데 등에 갈라진 무늬가 마치 문자와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떠서 《상서》〈홍범〉에 나오는

〈關雎〉之道⁹⁴，則〈關雎〉之事⁹⁵，將奚由至矣哉！夫《六經》之策⁹⁶，皆歸論汲汲⁹⁷，蓋取之乎〈關雎〉。〈關雎〉之事大矣哉！馮馮翊翊⁹⁸，自東自西，自南自北，無思不服⁹⁹。子其勉強之¹⁰⁰，思服之。天地之間，生民之屬¹⁰¹，王道之原，不外此矣。”子夏喟然¹⁰²嘆曰：“大哉〈關雎〉，乃天

“구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자세한 기록은 《상서》〈고명(顧命)〉 편에 공자가 주를 단 부분《한서》〈오행지(五行志)〉 상에 보인다.

93) 인봉상호교(麟鳳翔乎郊): 직역하면 교외에서 기린과 봉황이 날개 짓하라는 것이지만, 기린과 봉황은 길상의 동물이어서 태평성대에만 출현하기 때문에 공자도 일찍이 《논어》〈자한(子罕)〉 편에서 “봉황도 날아들지 않고, 황하(黃河)에서는 그림도 나오지 않으니, 내 일생도 아마 끝이 난 모양이구나!(“鳳鳥不至，河不出圖，吾已矣夫!”)”라고 하였다.

94) 도(道): 원대(元代) 이후에 일부 판본에는 “지(至)”자로 된 것도 있지만, 본 역주자는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고 사료되어 통용되는 설을 좇아 “도”자로 번역했다. 이곳의 “도”는 천지의 도를 가리킨다.

95) 사(事):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조대중(曹大中)을 중심으로 하는 〈관저〉의 도리를 시행하므로 말미암아 그것에 상응하는 사물들 즉 “하도(河圖)”와 “낙서(洛書)”가 출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진량운(陳良運)을 중심으로 하는 〈관저〉편 자체가 순수한 남녀지간의 사랑을 묘사한 작품임을 강조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남녀지간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후자의 견해가 틀렸다고 보다는 논리의 비약이 너무 지나친 면을 상회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전자의 견해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앞뒤 문맥에서 더 타당한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본역주자도 전자의 설에 따라 번역했다.

96) 책(策): 대쪽이란 의미에서 책이란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97) 귀론급급(歸論汲汲): “급급”은 물을 긴다는 의미에서 인신(引伸)되어 급히 또는 분주하게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구절은 급하게 (제가(齊家)와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도리를) 귀납시켜 논술하였다는 것이다.

98) 풍풍익익(馮馮翊翊): “풍풍”은 빨리 가다는 의미이고, “익익”은 날개 치며 나는 모양인데, 이곳에서는 둘 다 사방의 풍속을 교화시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99) 무사불복(無思不服): 생각함에 순복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므로 그 도리를 순종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다.

100) 자기면강지(子其勉強之): “자”는 2인칭대명사로 사용되어 그대 또는 자네라는 의미이고, “기”자는 부사로 사용되어 희망이나 권면·명령 등의 어기(語氣)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면강”은 힘을 다해 하다[盡力而爲]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대는 힘써 그것을 공부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101) 속(屬): 같은 무리의 범주라는 의미에서 인신되어 품덕(品德)을 가리킨다.

102) 위연(喟然): 탄식하는 모양을 가리키지만, 이곳에서는 탄식소리를 내는 모양 또는 감개가 깊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地之基也.”《詩》曰: “鐘鼓樂之.” (〈5권 1장〉)

[11]

자하가 (공자에게) 물어 “〈관저〉는 어찌하여 〈국풍〉의 시작이 되었습니까?”라고 하니, 공자가 “〈관저〉 이 시는 지극히 아름답구나! 저 〈관저〉 시를 쓴 사람은 우리러서는 하늘을 본받고, 굽어서는 땅을 본받았네. 그윽하고 심원하며, 덕을 속에 품고 있구나. (시의 곡조는) 얼마나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꿇듯이 솟구치는가! 도가 그것을 따라 운행함은 마치 신룡(神龍)처럼 변화하여 헤아리기 어렵고, 문채 또한 화려하고 아름답네. 위대하구나! 〈관저〉가 포함하고 있는 도리야 말로,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각종 생물들이 (보존되는 것도) 그것에 운명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네. 황하에서 용이 그림을 지고 나오고 낙수에서 거북이 글을 지고 나온 것, 기린과 봉황이 교외에 출현한 것들도, 〈관저〉의 도리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관저〉의 도리와 상응하는) 사물들이 장차 어떻게 출현할 수 있었겠는가? 저 《육경》이란 책은 모두 급하게 (제가(齊家)와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도리를) 귀납시켜 논술한 것인데, 대체적인 것은 〈관저〉 시에서 그것을 취한 것이다. 〈관저〉 시의 도리는 정말로 대단하구나! 사방의 풍속을 교화시켜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그 도리를 순종하지 않는 곳이 없다네. 자네는 그것을 힘써 배우고 그것을 생각하여 순복해야 할 걸세. 천지간의 모든 도리와 인류의 모든 품덕(品德) 및 왕도의 근원은 모두 그것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하가 감개가 깊어 탄식하며 “위대하구나! 〈관저〉의 도리는, 곧 천지 만물의 근본이네.”라고 하였다. 《시경》〈주남·관저〉편에서 “종과 북으로 그를 즐겁게 하리.”라고 하였다.

[12]

楚成王¹⁰³⁾讀書於殿上, 而倫扁在下, 作而問曰: “不審主君所讀何書也?”

103) 초성왕(楚成王): 《장자(莊子)》〈천도(天道)〉편과 《회남자(淮南子)》〈도응훈(道應訓)〉에는 모두 “제환공(齊桓公)”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중국

成王曰：“先聖之書。” 倫扁曰：“此直¹⁰⁴先聖王之糟粕¹⁰⁵耳。非美¹⁰⁶者也。” 成王曰：“子何以言之？” 倫扁曰：“以臣輪言之。夫以規爲圓，矩爲方，此其可付¹⁰⁷乎子孫者也。若夫¹⁰⁸合三木而爲一，應乎心，動乎體，其不可得而傳者也。則凡所傳直糟粕耳¹⁰⁹。” 故唐虞之法¹¹⁰可得而攷¹¹¹也，其

의 역대 왕조에서 혼란스러운 개국(開國) 초기나 말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늘 유가사상이 중심이 되어 통치를 했는데, 그 시기에 정리한 전적들에는 항상 남방의 미개한 초(楚)나라와 삼대(三代) 은(殷)나라의 후예인 송(宋)나라는 자신의 나라도 제대로 못 지킨 어리석은 백성의 대명사가 되었었다. 그러므로 본역주자의 천견(淺見)에는 이런 연유로 각기 전적들에 다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싶다.

104) 직(直): 옛 판본들에는 대부분 “진(眞)”자로 되어 있지만, “직”자가 부사로 다만 단지라는 의미가 문맥상 더 타당하다. 《회남자》〈도응훈〉에도 “是直聖人之糟粕耳”로 되어 있어서 고쳐서 번역했다.

105) 조박(糟粕): 술을 그르고 난 다음의 지게미를 가리키므로 찌꺼기로 번역했다.

106) 미(美): 아름답다라는 직역보다는 정미(精美)하다라는 의미가 더 타당한 것 같다.

107) 부(付): 이 글자는 응당 “전(傳)”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傳)”자가 먼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傳)”자로 되었다가 본문처럼 “부(付)”자로 되었다. “부(傳)”자와 “부(付)”자 통용되지만, 본역주자는 “부(付)”자로 수정했고, 아래 구절의 “應乎心，動乎體，其不可得而傳者也”는 본 구절과 상응한다.

108) 약부(若夫): ~에 대해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09) 즉범소전직조박이(則凡所傳直糟粕耳): “즉범”이 원대 이후의 판본에는 모두 “이위(以爲)”로 되어있는데, 역시 통한다. “직”자가 원래는 “진(眞)”자로 되어 있지만, 응당 본문처럼 수정해야 할 것이다. 《회남자》〈도응훈〉에는 “獨其糟粕在耳”로 되어 있는데, “독(獨)”자와 “직”은 “특(特)”이라는 다만과 단지라는 부사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통용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같은 의미인 것이다.

110) 당우지법(唐虞之法): 중국의 고대 전설 속 두 성군(聖君)인 요순(堯舜)으로 이들에 대한 사적은 《사기(史記)》〈오제본기(五帝本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 두 사람의 핵심은 효도와 공경이었다고 한다. 맹자가 제(齊)와 양(梁)나라에서 물러 나와 요순의 도를 서술하며 저작을 하였는데, 한영(韓嬰)은 맹자가 선왕의 학설을 본받는 것을 존중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곳 외에도 《한시외전》5권 14장에서 “唐虞之法可得而觀”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111) 고(攷): 일부 판본에서 “개(改)”자나 “고(故)”자로 된 것은 전부 옳지 않다 틀린 것이다. 아마도 원래부터 일부 판본에는 정확하게 “고(攷)”자로 전해졌을 터지만,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수자의 지적수준과 이해력의 차이로 자신의 견해가 반영되면서 이런 문제를 낳은 것 같다. 본역주자는 허유홀의 견해에 따라 “고(攷)”자 그대로 번역했다.

喻¹¹²⁾人心不可及矣. 《詩》曰: “上天之載, 無聲無臭¹¹³⁾.¹¹⁴⁾” 其孰能及之? (〈5권 6장〉)

[12]

초나라 성왕이 궁전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윤편은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었는데, 일어나 “모르긴 하지만 임금께서 읽으시는 것은 무슨 책입니까?”라고 물으니, 성왕이 “고대 성인들의 책이라네.”라고 하자, 윤편이 “이것은 다만 고대 성인들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정미(精美)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성왕께서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라고 하자, 윤편은 “제가 수레바퀴 만들 때 깨달은 것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둥근 자인 구로는 둥근 것을 만들고, 곧은 자인 구로는 모난 것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자손에게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나무 세 덩어리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내 마음에 부합되도록 만들되, (제 마음의 의도에 따라) 손을 놀려 깎고 합쳐서 원만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머리와 손을 합쳐서 마음의 생각을 운용하는 과정은) 아마도 터득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전수하는 것은 다만 찌꺼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의 치국 방법은 터득하고 고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친 것에는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시경》〈대아·문왕〉 편에서 “위 하늘의 뜻 헤아리기 어려움이여! 소리도 없고 기식(氣息)도 없이 묘망(渺茫)하기만 하네!”라고 하였으니, 그 누가 그것에 미칠 수 있겠는가?

[13]

孔子學鼓琴於師襄子¹¹⁵⁾而不進¹¹⁶⁾, 師襄子曰: “夫子可以進矣.” 孔子曰:

112) 유(喻): 비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우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13) 취(臭): 기식(氣息)이나 기미(氣味)를 가리킨다.

114) 이 구절은 《시경》〈대아(大雅)·문왕(文王)〉 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115) 고금어사양자(鼓琴於師襄子): “고”자가 이곳에서는 동사로 타다 또는 뜯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양자”가 《초학기》권16에서 인용할 때는 “師堂

“丘已得其曲¹¹⁷矣, 未得其數¹¹⁸也.” 有問, 曰: “夫子可以進¹¹⁹矣.” 曰: “丘已得其數矣, 未得其意¹²⁰也.” 有問, 復曰: “夫子可以進矣.” 曰: “丘已得其意矣, 未得其人¹²¹也.” 有問, 復曰: “夫子可以進矣.”¹²² 曰: “丘已得其人矣, 未得其類¹²³也.” 有問, 曰: “邈然遠望¹²⁴, 洋洋乎¹²⁵, 翼翼乎¹²⁶, 必作此樂也. 黯然而黑¹²⁷, 幾然而長¹²⁸, 以王¹²⁹天下, 以朝諸侯

-
- 子”로 되어 있고, 《문선(文選)》의 〈칠발(七發)〉에 당대(唐代) 이선(李善)이 주석을 달면서 인용할 때는 “師堂子京”으로 되어 있다. “자경”은 그의 자(字)임을 알겠지만, 본문의 “師襄子”와 “師堂子京”의 차이에 대해 진교종(陳喬縱)은 음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자못 이해하기 쉽지 않다. “사양자”에 대해 《회남자》와 《공자가어(孔子家語)》등을 통해 살펴보면 춘추시기 노(魯)나라의 태사(太師)로 경(磬)을 치던 악관(樂官)이었다.
- 116) 부진(不進): 진보가 없다 또는 나아가지 않다는 의미이다.
- 117) 기곡(其曲): 그 곡조 또는 그 곡보(曲譜)라는 의미이다.
- 118) 기수(其數): 그 연주의 기법(技法)라는 의미이다.
- 119) 진(進): 《사기》〈공자세가孔子世家〉와 《공자가어》〈변악해(辨樂解)〉를 보면 “可以益矣”라 되어 있으므로 진보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새로운 내용을 더해 배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아래 구절의 두 부분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 120) 기의(其意): 그 곡조의 의미(意味)라는 뜻이다.
- 121) 기인(其人): 그 곡을 만든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 122) 曰: “丘已得其意矣, 未得其人也.” 有問, 復曰: “夫子可以進矣.” 이 22글자가 원래는 탈락되어 없었다. 하지만 《초학기》권16에서 인용할 때는 모두 현존하고 있고 앞뒤 문맥으로 살펴보아도 있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보충해 넣어서 번역했다. 《사기》〈공자세가〉와 《공자가어》〈변악해〉에도 “未得其人”이란 구절은 포함되어 있다.
- 123) 기류(其類):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라는 의미이다.
- 124) 막연원망(邈然遠望): 아득히 멀리 바라보라는 의미이다.
- 125) 양양호(洋洋乎): 넓고 큰 모양 또는 광대(廣大)하고 성대(盛大)한 모양을 가리킨다.
- 126)翼翼호(翼翼乎): 굳세거나 건장한 모양 또는 장엄(莊嚴)한 모양을 가리킨다.
- 127) 암연이흑(黯然而黑): 옛 판본에는 “默然思”로 되어 있고, 원대 이후 판본에는 “默然異”로 되어 있지만, 조희옥(趙懷玉)은 《한시외전교(韓詩外傳校)》에서 본문처럼 “암연이흑”이라고 하였고 “默然異”로 하는 것은 틀렸으며, 현존하는 《사기》〈공자세가〉에 근거하여 보충하고 수정한다고 하였다. 본역주자는 조희옥의 교주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그의 학설에 따라 번역하였다.
- 128) 기연이장(幾然而長): 옛 판본에는 “戚然而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는다. 원대 이후 판본에는

者, 其惟文王乎!” 師襄子避席再拜曰: “善! 師以爲文王之操¹³⁰)也.” 故孔子持¹³¹)文王之聲, 知文王之爲人. 師襄子曰: “敢問何以知其文王之操也?” 孔子曰: “然. 夫仁者好韋¹³²), 和者好粉, 智者好彈, 有慤慤之意者¹³³)好麗. 丘是以知文王之操也.” 傳曰: 聞其末而達其本者, 聖也. (〈5권 7장〉)

[13]

공자가 사양자에게 금(琴) 타는 것을 배워도 나아지지 않자, 사양자가 “선생께서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 “저 구(丘)는 이미 그 곡보(曲譜)를 터득했지만, 연주하는 기법은 아직 터득하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서 사양자가 “선생께서는 좀 더 새로운 것을 더해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저 구는 이미 연주의 기법은 터득했지만, 곡조의 의미는 아직 터득하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하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서 또 사양자가 “선생께서는 좀 더 새로운 것을 더해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저 구는 이미 곡조의 의미는 터득하였지만, 그 곡을 만든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서 또 사양자가 “선생께서는 좀 더 새로운 것을 더해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저 구는 이미 그 곡을 만든 사람은 알지만,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후에 이어서 “아득히 멀리 바라보니 얼마나 크고 높은가!

본문처럼 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사기》〈공자세가〉에도 본문과 동일하므로 수정해서 번역하였다. “기(幾)”자에 대해 《사기집해(史記集解)》에서는 “기(頤)”자의 의미라고 하였는데, 키가 크고 풍채가 장하다는 뜻이다.

129) 왕(王): 왕 노릇하다는 동사로 사용되었다.

130) 문왕지조(文王之操): 문왕을 가공송덕하기 위해 지은 금곡(琴曲)을 가리킨다.

131) 지(持): 이해하다 또는 파악하다는 의미이다.

132) 위(韋): 옛 판본에는 “위(偉)”자로 되어 있는데, 청대 손이양(孫詒讓)은 “‘위(偉)’자로 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생각건대 ‘위’자는 옹당 ‘위(韋)’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偉無義, 疑偉當作韋)”라고 하였다. “위(韋)”자는 무두질한 가죽이란 뜻에서 부드럽다 또는 온화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33) 유은근지의자(有慤慤之意者): 은근한 뜻을 가진 사람 또는 따스하고 빈틈 없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이지만, 이곳에서는 마음과 뜻이 완곡하면서도 주도면밀한 사람을 가리킨다.

또 얼마나 장엄한가! 분명 이 악곡을 지은 사람일 것입니다. 짙은 검은 피부에 키가 크고 풍채가 장하며 천하에 왕 노릇하고 제후들이 와서 조회하니 아마도 오로지 문왕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사양자가 자리를 피하여 두 번 절하며 “훌륭하십니다! 저도 문왕을 가공송덕하기 위해 지은 금곡(琴曲)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자는 문왕의 악곡을 이해하였으므로 문왕의 사람됨을 알게 되었다. 사양자가 (공자에게) “감히 여쭙건대 그것이 문왕을 가공송덕하는 금곡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라고 하니, 공자께서 “네. 무릇 어진 사람은 부드러운 것을 좋아 하고, 온화한 사람은 꾸미기를 좋아 하며, 총명한 사람은 금(琴) 타는 것을 좋아 하고, 마음과 뜻이 완곡하면서도 주도면밀한 사람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 구는 이런 까닭에 문왕의 금곡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옛 책에서 “그 끝을 듣고 그 뿌리까지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14]

禮者則¹³⁴⁾天地之體，因人之情而爲之節文者也。無禮，何以正身？無師，安知禮之¹³⁵⁾是也？禮然而然，是情安於禮也。師云而云，是知¹³⁶⁾若師也。情安禮，知若師，則是¹³⁷⁾君子之道。言中倫，行中理，天下順矣。《詩》曰：“不識不知，順帝之則。”¹³⁸⁾ (〈5권 10장〉)

[14]

예라는 것은 천지의 형상을 본받은 것인데, 사람의 사정(事情)에 따라 적합한 절제와 문식을 더한 것이다. 예가 없으면 무엇으로 몸을 바르게

134) 칙(則): 본받다는 의미이다.

135) “지”자 밑에 《순자(荀子)》〈수신(修身)〉 편에는 “위(爲)”자가 덧붙여 있다. 본역주자의 천견에는 “위”자가 있으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겠지만, 없더라도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고 사료되어 원문대로 번역했다.

136) 지(知): “지(智)”자와 같은 의미이다.

137) 즉시(則是): 일부판본에는 “시칙(是則)”으로 된 곳도 있는데,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138) 이 구절은 《시경》〈대아·황의(皇矣)〉 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하겠는가?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예의 옳음을 알겠는가? 예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성정(性情)이 예를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스승이 말씀하신대로 말하는 이런 것은 지혜가 스승과 같기 때문이다. 성정이 예를 편안히 여기고, 지혜가 스승과 같은 것이 이것이 군자의 도이다. 말이 윤리에 맞고 행동이 이치에 부합되면 천하는 순응하게 될 것이다. 《시경》〈대아·황의〉편에서 “마치 무식하고 무지한 듯하나, 상제의 법칙을 순종하네.”라고 하였다.

[15]

人有六情¹³⁹⁾, 目欲視好色, 耳欲聽宮商¹⁴⁰⁾, 鼻欲嗅芬香, 口欲嗜甘旨, 其身體四肢欲安而不作, 衣欲被文繡而輕暖. 此六者, 民之六情也. 失之則亂, 從之則穆. 故聖王之教其民也, 必因其情而節之以禮, 必從其欲而制之以義. 義簡而備, 禮易而法, 去情不遠, 故民之從命也速. 孔子知道之易行也¹⁴¹⁾. 《詩》云: “牖¹⁴²⁾民孔易.¹⁴³⁾” 非虛辭也. (〈5권 16장〉)

[15]

사람은 여섯 가지 욕구를 갖고 있어서 눈으로는 좋은 색깔을 보고 싶어 하고, 귀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어 하며, 코로는 향기로운 향내를 맡고 싶어 하고, 입으로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며, 그 몸과 사지로는 편안하고 일 안하고 싶어 하고, 옷으로는 문양으로 수놓은 가볍고 따뜻한 것을 입으려 한다. 이 여섯 가지는 백성들의 육정(六情)이

139) 정(情): 욕구나 바람을 가리킨다.

140) 궁상(宮商): 아름다운 음악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41) 야(也): 일부 판본에는 “왈(曰)”자로 되어 있거나 “야(也)”자가 탈락되어 없는데, 주종율(周宗栴)은 “‘왈(曰)’자는 ‘야(也)’자의 잘못이고, ‘행(行)’자 밑에는 웅당 ‘야(也)’자가 있어야 한다. (‘曰’即‘也’之譌, ‘行’)下當有‘也’字”고 했는데, 본역주자도 주종율의 주장에 동감하여 그대로 따랐다.

142) 유(牖): 절대다수의 판본에는 “유(誘)”자로 되어 있지만, “유(牖)”자의 본래 의미에도 인도하다 또는 유도하다는 뜻이 있지만, 워낙 틀창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밝혀있고, 그 의미로 더 상용되면서 “유(誘)”자로 수정해서 사용한 듯하다.

143) 이 구절은 《시경》〈대아·판(板)〉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다.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문란해지고, (적당히 백성들의 욕구에) 따라주면 화목해진다. 그러므로 성왕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교화할 때는 그들의 사정에 따르되 예로 그것을 절제하도록 하였고, 그들의 욕구를 따르되 의로 그것을 제한하였다. 의는 간단하면서도 완비되고, 예는 쉬우면서도 법칙이 있어서 (백성들의) 인정을 떠나되 멀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명을 따르는 것도 신속하였다. 공자는 정도(正道)란 쉽게 미루어 행하는 것임을 알았다. 《시경》〈대아·판〉 편에서 “백성이 아주 쉽게 행하도록 유도하라.”라고 한 것은 헛된 말이 아니로다.

[16]

水淵深廣，則龍魚生之．山林茂盛，則禽獸歸之．禮義修明，則君子懷之．故禮及身而行修，禮¹⁴⁴⁾及國而政明．能以禮扶身¹⁴⁵⁾，則貴名自揚，天下順焉，令行禁止¹⁴⁶⁾，而王者之事畢矣．《詩》曰：“有覺¹⁴⁷⁾德行，四國順之．¹⁴⁸⁾”夫此之謂矣．(〈5권 21장〉)

[16]

물과 연못이 깊고 넓어야 용과 물고기가 그곳에 살게 된다. 산림이 무성하면 금수가 그곳으로 돌아온다. 예의가 닳여있고 밝으면 (덕과 학문을 갖춘) 군자들이 그곳을 그리워한다. 그러므로 예가 몸에 이르면 행실은 닳게 되고, 예가 나라에 미치게 되면 정치는 밝게 된다. 예로 자신을 떠받들 수 있으면 존귀한 명성은 저절로 드날리게 되고, 천하가

144) 예(禮): 《순자》〈치사(致士)〉 편에는 “의(義)”자로 되어 있지만, 본역주자는 원문대로 번역했다.

145) 부신(扶身): 《순자》〈치사〉 편에는 “의협(義挾)”으로 되어 있지만, 본역주자는 원문대로 번역했다.

146) 영행금지(令行禁止): 명령하면 행하고, 금하면 그친다는 의미이다. 즉 법령이나 기율이 엄하면서 분명한 것을 비유한다. 《일주서(逸周書)》〈문전(文傳)〉 편에서 “명령하면 행하고, 금하면 그친다는 왕 노릇하는 시작이다.(令行禁止，王始也.)”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의미가 확대되어 정령(政令)은 시행해도 막힘이 없고 금령(禁令)도 효과를 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147) 각(覺): “각(覺)”자의 의미인 높고 크며 정직한 모양을 가리킨다.

148) 이 구절은 《시경》〈대아·억(抑)〉 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귀순해 오며, 정령(政令)은 시행해도 막힘이 없고 금령(禁令)도 효과를 내므로 왕 노릇하는 사람의 일은 마치게 될 것이다. 《시경》〈대아·억〉편에서 “천자께서 바르고 곧은 덕행을 갖고 계시니, 사방의 제후들이 그에게 순종하네.”라고 한 것은 무릇 이것을 말한 것이다.

[17]

故道得¹⁴⁹⁾則澤流羣生, 而福歸王公. 澤流羣生則下安而和, 福歸王公則上尊而榮. 百姓皆懷安和之心, 而樂戴其上¹⁵⁰⁾, 夫是之謂下治而上通¹⁵¹⁾. 下治而上通, 頌聲之所以興也. 《詩》曰: “降福簡簡, 威儀畎畎. 既醉既飽, 福祿來反.”¹⁵²⁾ (〈5권 31장〉)

[17]

그러므로 치국(治國)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되면 은택은 못 생명에게 흘러들고, 복은 국왕과 공후(公侯)에게로 돌아간다. 은택이 못 생명에게 흘러들면 아래 백성들은 편안하고 화목해지며, 복이 국왕과 공후에게로 돌아가면 위의 국왕과 공후는 존귀하고 영화롭게 된다. 백성들은 모두 편안하고 화목한 마음을 품고, 자신들의 위 국왕과 공후를 모시는 것을 즐거워한다. 무릇 이것을 아래가 다스려져 위로 통한다고 하는 것이다. 아래가 다스려져 위로 통하게 되면 칭송의 소리가 일어나게 되는 까닭이다. 《시경》〈주송·집경〉편에서 “가없는 큰 복을 내리시고, 제례(祭禮)는 엄숙하고 단정하네. 무왕(武王)의 신령(神靈) 이미 취하고 배부르셔 끊임없는 복록으로 보답하시네.”라고 하였다.

149) 도득(道得): 직역하면 도가 제자리를 얻다는 것이겠지만, 앞뒤 문맥에서 보면 치국(治國)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된다는 의미이다.

150) 낙대기상(樂戴其上): “대”자는 떠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자신들의 위인 국왕과 공후를 떠받들어 모시는 것을 좋아 하다는 의미이다.

151) 하치이상통(下治而上通): 직역하면 아래가 다스려져 위로 통하다는 것이지만, 백성들이 잘 다스려져서 편안하고 국왕과 공후의 마음이 막힘이 없이 시원하다는 의미이다.

152) 이 구절은 《시경》〈주송(周頌)·집경(執競)〉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시는 주(周)나라 무왕(武王)에게 제사지내는 시이다.

[18]

聖人養一性¹⁵³而御六氣¹⁵⁴, 持一命¹⁵⁵而節滋味¹⁵⁶, 奄治天下¹⁵⁷, 不遺其小, 存其精神, 以補其中, 謂之志¹⁵⁸. 《詩》曰: “不競不綏, 不剛不柔.”¹⁵⁹ 言得中也. (〈5권 32장〉)

[18]

성인은 선량한 하나의 성품을 길러 여섯 가지 기운을 제어하고,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하나의 성명(性命)을 지키고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절제하며, 널리 천하를 통치하되 그 작은 곳도 남기지 않으며, 그 정신을 보존하여 그 중도(中道)를 돕는 것을 뜻이라 한다. 《시경》〈상송·장발〉 편에서 “다투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으며, 강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네.”라고 한 것은 중도(中道)에 부합된 것을 말한 것이다.

153) 일성(一性): 하나의 성품 또는 자신의 선량한 한 마음을 가리킨다.

154) 어육기(御六氣): “어”는 처리하다 또는 통제하다는 의미이다. “육(六)”자가 옛 판본의 절대 다수는 “대(大)”자로 되어 있고, 일부 판본에는 “부(夫)”자로 된 곳도 있다. 조희옥은 “육기”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하였지만, 본역주자는 《장자》〈소요유(逍遙遊)〉 편에서 “육기의 변화를 파악하다(而御六氣之辯)”와 《관자(管子)》〈계(戒)〉 편에서 “정확하게 육기의 변화를 파악하다(御正六氣之變)”는 두 구절을 근거로 원문대로 번역했다. 사마표(司馬彪)는 《장자》〈소요유〉의 “육기”에 대해 주석을 달면서 정통 도가(道家)의 학설인 “육기는 음과 양·풍·우·화·명이다(六氣, 陰陽風雨晦明)”고 하였고, 《관자》〈계〉 편에서는 “육기”에 대해 “호와 오·희·노·애·락이다.(好惡喜怒哀樂)”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사료되어 후자의 의미로 옮겼다.

155) 지일명(持一命):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성명(性命)을 지키다는 의미이다.

156) 절자미(節滋味): “자미”는 이곳에서 힘들고 즐거운 체험이나 느낌에서 의미가 확대되어 감정이나 재미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절제하다는 뜻이다.

157) 엄치천하(奄治天下): “엄(淹)”자는 “엄(淹)”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깊고 넓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널리 천하를 통치하다는 의미이다.

158) 지(志): 옛 판본에는 “사(士)”자로 되어 있지만, 원대 이후 판본에는 모두 “지(志)”자로 되어 있고 앞뒤 문맥상 “지(志)”자가 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해서 번역했다.

159) 이 구절은 《시경》〈상송(商頌)·장발(長髮)〉 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19]

天下之辯，有三至三勝，而辭直爲¹⁶⁰下。辯者，別殊類，使不相害，序異端，使不相悖，輸志通意¹⁶¹，揭¹⁶²其所謂。使人預知焉，不務相¹⁶³迷也。是勝¹⁶⁴者不失所守，不勝者得其所求，故辯可觀也。夫繁文以相假，飾辭以相悖，數¹⁶⁵譬以相移，外¹⁶⁶人之身使不得反¹⁶⁷其意，則論便然後害生也。夫不疏其指而弗知¹⁶⁸謂之隱，外意外身謂之諱，幾廉倚跌¹⁶⁹謂之移，指緣

160) 직위(直爲): “직”자가 옛 판본에는 “치(置)”자로 되어 있고, “위(爲)”자도 탈락되어 없지만, 청대 손이양의 견해에 따라 보충해 넣어서 번역했다.

161) 수지통의(輸志通意): “지(志)”자도 옛 판본에는 “공(公)”자로 되어 있는데, 《등석자(鄧析子)》〈무후(無厚)〉편에서 “마음의 뜻을 건네고 바람을 표현하는 것은 서로 어그러짐을 힘쓰는 것이 아니다.(輸志通意, 非務相乖也.)”고 했으므로 “공(公)”자보다는 “지”자가 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해서 번역했다.

162) 게(揭): 옛 판본에는 “양(揚)”자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상 드날리다는 “양”자보다 드러내보인다는 “게”자가 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해서 번역했다.

163) 상(相): 원대 판본에는 “기(杞)”자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상 아예 타당하지 않아서 수정해서 번역했다.

164) 승(勝): 옛 판본에는 “변(辯)”자로 되어 있는데, 백보양보해서 굳이 해석한다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뒤 문장에서 언급하는 “불승자(不勝者)”에 대한 대비의 구절은 “승(勝者)”가 더 타당하고, 전체 문맥 속에서 이기든 지든 결국은 변론의 결과이기 때문에 “변”자로 의미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승(勝)”자가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해서 번역했다.

165) 삭(數): 자주라는 부사로 사용되었다.

166) 외(外): 원대 판본에 “열(列)”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상 타당하지 않아서 수정해서 번역했다.

167) 반(反): “반(返)”자의 의미인 되돌아오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168) 기지이불지(其指而弗知): 원대 판본에는 “기(其)”자가 “기(氣)”자로 되어 있고, “지(知)”자가 “지(之)”자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상 아예 타당하지 않아서 수정해서 번역했다.

169) 기렴의질(幾廉倚跌): “의(倚)”자가 원대 판본에는 “의(猗)”자로 되어 있는데, 따를게 못되는 것 같다. 이 구절에 학의행(郝懿行)은 “기는 가깝다는 것이다. 얹은 모퉁이처럼 구석진 것이다. 의는 치우치다는 것이다. 질은 지나치다는 의미이다. 모두 변론하는 문사들이 확고하지 않아 우물쭈물하는 모양이다.(幾, 近也. 廉, 隅也. 倚, 偏也. 跌, 過也. 皆辯詞游移之貌也.)”고 하였다. 아마도 이 구절은 (비유를 드는 것이) 가까운 것 같으나 귀퉁이처럼 구석진 곳

謬辭謂之苟. 四者君子¹⁷⁰⁾所不爲也. 故理可同睹也. 夫隱、諱、移、苟, 爭言競爲而後息, 不能無害其爲君子也, 故君子不爲也. 《論語》曰: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¹⁷¹⁾” 《詩》曰: “無易由言, 無曰苟矣.¹⁷²⁾” (〈6권 6장〉)

[19]

천하의 변론에는 세 가지 지극한 것과 세 가지 뛰어난 것이 있는데, 문사가 직접적인 것이 가장 낮다. 변론이란 다른 종류를 구별하여 서로 해치지 않게 하고, 다른 견해를 서술하나 서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며, 마음의 뜻을 건네고 바람을 표현하며, 자신이 말하려는 것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알도록 하는 것이지, 결코 서로 미혹되는데 힘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론하여 이긴 사람은 자신이 지키는 입장을 잃지 않게 되고, 이기지 못한 사람도 그가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되므로 변론은 한번 볼만한 것이 된다. 무릇 문사를 번잡하게 하여 서로 속이거나, 문사를 꾸며서 서로 어그러지게 하고, 비유를 자주하여 (중심 논점을) 서로 옮기며, 다른 사람이 주제를 벗어나도록 이끌어 그 본래의 논제에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변론이야 편할지라도 그렇게 한 후에는 해로움이 생겨나게 된다. 무릇 (변론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된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은(隱)이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원래의 본 주제에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휘(諱)라 하며, (비유를 드는 것이) 가까운 것 같으나 귀퉁이처럼 구석진 곳에 있고 의지할만한 것 같으나 지나치거나 치우쳐있는 것을 이(移)라고 하고, 주된 의미를 황당한

에 있고 의지할만한 것 같으나 지나치거나 치우쳐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170) 군자(君子): 옛 판본에는 탈락되었는데, 없게 되면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청대 손이양의 견해에 따라 보충해 넣어서 번역했다.

171) 이 구절은 《논어》〈자로(子路)〉편에서 “그러므로 군자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도 반드시 (그것에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치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치에 맞는 말은 반드시 통하게 된다. 군자는 그 말의 표현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故君子名之必可言也, 言之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고 한데서 인용한 것이다.

172) 이 구절은 《시경》〈대아·역〉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문사로 드러내는 것을 구(苟)라고 한다. 이 네 가지 변론 방법은 군자가 하지 않으므로 군자가 말하는 도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이다. 무릇 은과 휘·이·구의 변론 방법은 모두들 다투어 취하여 변론하다가 그만두므로 그것이 군자에 대해 해가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군자는 하지 않는 것이다. 《논어》〈자로〉편에서 “군자는 그 말의 표현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했고, 《시경》〈대아·역〉편에서 “쉽게 말하지 말고, 적당하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20]

昔者孔子鼓瑟¹⁷³，曾子子貢側門¹⁷⁴而聽。曲終，曾子曰：“嗟乎！夫子瑟聲殆有貪狼之志，邪僻之行，何其不仁趨利之甚？”子貢以爲然，不對而入。夫子望見子貢有諫過之色，應難之狀¹⁷⁵，釋瑟而待之。子貢以曾子之言告。子曰：“嗟乎！夫參，天下賢人也，其習¹⁷⁶知音矣。鄉者¹⁷⁷丘鼓瑟，有鼠出游，狸見於屋¹⁷⁸，循梁微行，造焉而避¹⁷⁹，厭目曲脊¹⁸⁰，求¹⁸¹而不得。

173) 고슬(鼓瑟): 《공충자(孔叢子)》〈기의(機宜)〉편에는 “고금(鼓琴)”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의미상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본문처럼 옮겼다.

174) 문(門): 《공자집어(孔子集語)》권5에는 “이(耳)”자로 되어 있다. 스승이 악기를 연주할 때 문에 기대다는 의미보다는 귀를 기울여가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본역주자는 “이”자의 의미로 번역했다.

175) 응난지상(應難之狀): 응해서 비난하는 모습이란 의미이다. 원대 판본에는 “應之難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즉 스승 공자에 응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가리키므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모습인 것 같다.

176) 습(習): 익숙하다 또는 잘 알다는 의미이다.

177) 향자(鄉者): “향(鄉)”자는 “향(曠)”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조금 전이라는 뜻이다.

178) 이견어옥(狸見於屋): “이(狸)”는 살쥔이 또는 야생 고양이를 가리킨다. “어(於)”자가 원대 판본에는 “속(屬)”으로 되어 있는데, 도무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살쥔이가 집에 나타나다는 뜻이다.

179) 조언이피(造焉而避): “조언”은 “造於之”의 의미로 쥐에게 다가가다는 뜻이다. “이피”가 원대 판본에는 “편폐(便弊)”로 되어 있어서 곧장 숨어버리다 또는 곧장 피해버리다는 뜻이므로 더 생동적인 표현인 듯하다. 본문처럼 하더라도 의미는 크게 손상되지 않으므로 몇 자 더해 번역했다.

180) 염목곡척(厭目曲脊): 증오해서 눈을 눌러 가늘게 뜨고 허리를 굽히다는 의미이다. 이 네 글자 바로 다음에 원대 판본에는 “역색(逆色)”이라는 두 글자

丘以瑟淫¹⁸²其音. 參以丘爲貪狼邪僻, 不亦宜乎!” 《詩》曰: “鼓鐘于宮, 聲聞于外.¹⁸³” (〈7권 26장〉)

[20]

예전에 공자께서 슬(瑟)을 타실 때, 증자와 자공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곡이 끝나자, 증자가 “아! 선생님께서 타시는 슬의 소리에는 아마도 탐욕스런 이리의 감정과 사악하고 편벽한 행위가 있는 듯 하며, 왜 그토록 어질지 못하고 이로움을 쫓는 것이 심한가?”라고 하였다. 자공도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증자의 말에 대꾸하지 않은 채 (공자의 방에) 들어갔다. 공자께서도 자공이 과실(過失)을 간하려는 기색과 응해서 비난하려는 모습이 있음을 보고 슬을 놓고 그를 기다렸다. (조금 있자) 자공이 증자의 말을 공자에게 고하였다. 공자께서 “아! 저 증자는 천하의 현인이고, 그렇게도 음물에 익숙하구나. 조금 전에 나 구(丘)가 슬을 탄 것은 쥐가 나와서 노닐 때, 살쥔이가 집에 나타나 대들보를 따라 살금 살금 쥐에게 다가가자 (쥐가) 피해버려, 살쥔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허리를 굽혀 잡고자 하지만 잡을 수 없는 모습이였다. 나 구는 (이 상황을) 슬의 소리에 깊이 스며들게 했었다. 증삼이 나 구의 음악이 탐욕스런 이리의 감정과 사악하고 편벽한 행위가 있는듯하다고 여겼으니 또한 적합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시경》〈소아·백화〉편에서 “궁정에서 큰 종을 두드리면, 그 소리는 바깥에까지 들리네.”라고 하였다.

[21]

然身何貴也? 莫貴於氣. 人得氣則生, 失氣則死. 其氣非金帛珠玉也, 不可求於人也. 非繒¹⁸⁴布五穀也, 不可糴買¹⁸⁵而得也. 在吾身耳, 不可不慎

가 더 있다.

181) 구(求): 원대 판본에는 “획(獲)”으로 되어 있다.

182) 음(淫): 일부 판본에는 “부(浮)”자로 되어 있고, 원대 판본에는 “위(爲)”자로 되어 있다.

183) 이 구절은 《시경》〈소아·백화〉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也. 《詩》曰: “既明且哲, 以保其身.”¹⁸⁶⁾”(〈8권 2장〉)

[21]

그런즉 자신에게서 무엇이 가장 귀한가? 기보다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이 기를 얻으면 살고, 기를 잃으면 죽는다. 그 기는 황금이나 비단·구슬·옥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비단이나 베·오곡이 아니므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내 몸에 있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도다. 《시경》〈대아·중민〉편에서 “지식이 넓고 이치에 밝아, 그 자신을 보전할 수 있었네.”라고 하였다.

[22]

魏文侯有子¹⁸⁷⁾曰擊, 次曰訴¹⁸⁸⁾, 訴少而立之¹⁸⁹⁾以爲¹⁹⁰⁾嗣. 封擊於中山, 三年莫往來. 其傳趙蒼唐¹⁹¹⁾諫曰: “父忘子, 子不可忘父. 何不遣使乎?” 擊曰: “願之, 而未有使也.” 蒼唐曰: “臣請使.” 擊曰: “諾.” 於是乃問君之所好與所嗜. 曰: “君好北犬, 嗜晨鴈¹⁹²⁾.” 遂求北犬晨鴈¹⁹³⁾行. 蒼唐

184) 중(緇): 비단을 가리킨다.

185) 적매(糴買): 사들이다는 의미이다.

186) 이 구절은 《시경》〈대아·중민(蒸民)〉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187) 자(子): 장자(長子)의 의미이다.

188) 소(訴): 일부 판본에는 “흔(訢)”자로 된 곳도 있지만, 《문선》〈사자강덕론(四子講德論)〉주석에서 《한시외전》을 인용하면서 “訴”자로 했기 때문에 본문처럼 번역했다.

189) 지(之): 옛 판본에는 탈락되어 없지만, 《문선》〈사자강덕론〉주석에서 《한시외전》을 인용하면서 “지(之)”자를 덧붙여 놓았고 “지”자가 있으므로 의미가 더 분명하기 때문에 덧붙여 번역했다.

190) 위(爲): 옛 판본에는 탈락되어 없지만, 《문선》〈사자강덕론〉주석에서 《한시외전》을 인용하면서 “위(爲)”자가 있으므로 의미가 더 분명하기 때문에 덧붙여 번역했다.

191) 기부조창당(其傳趙蒼唐): “부”는 스승이라는 의미이고, “조창당”이 일부 전적과 판본에는 “趙倉堂”으로 되어 있다. “창(蒼)”자가 “창(倉)”으로 사용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당(唐)”이 “당(堂)”자로 호환되는 경우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좌전》〈정공(定公)〉5년에 “堂谿氏”가 《후한서(後漢書)》〈연독전(延篤傳)〉에는 “唐溪氏”로 되어 있다. 이것이 고대에 두 글자가 통용된 예가 아닐까 한다.

至, 曰: “北蕃中山之君, 有北犬晨鴈, 使蒼唐再拜獻之.” 文侯曰: “嘻¹⁹⁴! 擊知吾好北犬, 嗜晨鴈也.” 則見使者. 文侯曰: “擊無恙¹⁹⁵乎?” 蒼唐唯唯¹⁹⁶而不對. 三問而三不對. 文侯曰: “不對何也?” 蒼唐曰: “臣聞諸侯不名君¹⁹⁷. 既已賜弊邑¹⁹⁸, 使得小國侯, 君問以名¹⁹⁹, 不敢對也.” 文侯曰: “中山之君無恙乎?” 蒼唐曰: “今者²⁰⁰臣之來, 拜送於郊.” 文侯曰: “中山之君長短²⁰¹若何矣?” 蒼唐曰: “問諸侯, 比諸侯. 諸侯之朝, 則側者皆人臣, 無所比之. 然則所賜衣裘²⁰²幾能勝之矣.” 文侯曰: “中山之君亦何好乎?” 對曰: “好《詩》.” 文侯曰: “於《詩》何好?” 曰: “好《黍離》²⁰³與《晨風》²⁰⁴.” 文侯曰: “《黍離》何哉?” 對曰: “彼《黍離》離, 彼稷之苗. 行邁靡靡, 中心搖搖. 知我者謂我心憂, 不知我者謂我何求. 悠悠蒼天, 此何人

192) 신안(晨鴈): “안”자가 한대 유향(劉向)의 《설원(說苑)》 〈봉사(奉使)〉 편에는 “부(梟)”자로 되어 있다. “신부”는 야생 오리나 기러기를 가리키지 않는다.

193) 재(齋): 일부 판본에는 “責”나 “賁”로 된 곳도 있는데, 세 글자가 가지고 오(가)다라는 의미로는 통용해서 사용한다. 본문의 글자로 한 까닭은 《문선》 〈사자강덕론〉 주석에서 《한시외전》을 인용한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4) 회(嘻): 옛 판본에는 없는 글자인데, 《설원》 〈봉사〉 편을 근거로 보충해 넣었다.

195) 양(恙): 근심과 질병을 가리킨다.

196) 유유(唯唯): 상대방에게 “예예”하며 응하기만 할 뿐 가부(可否)를 표하지 않는 모양을 가리킨다.

197) 제후불명군(諸侯不名君): 제후는 임금의 이름을 일컫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98) 폐읍(弊邑): 편벽한 작은 고을을 가리킨다.

199) 군문이명(君問以名): 임금께서 이름으로 물으시니라는 의미이다. 이 네 글자가 원대 판본에는 없다.

200) 금자(今者): 앞뒤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창당이 떠나오던 그 때라는 의미이다. 본문에서는 며칠 걸려서 왔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번역은 생략하였다.

201) 장단(長短): 키가 어느 정도 커다는 의미이다.

202) 의구(衣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여름옷과 겨울 겹옷[夏衣冬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적으로 가죽 겹옷[皮裘]이나 일반적인 의복[衣服]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곳에서는 후자의 일반적인 의복을 가리키는 의미지 싶다.

203) 〈서리〉(〈黍離〉): 《시경》 〈왕풍(王風)·서리(黍離)〉 편을 가리킨다.

204) 〈신평〉(〈晨風〉): 《시경》 〈진풍(秦風)·신평(晨風)〉 편을 가리킨다.

哉!”文侯曰:“怨乎?”曰:“非敢怨也,時思也.”文侯曰:“〈晨風〉謂何?”對曰:“『鷓鴣晨風,鬱彼北林.未見君子,憂心欽欽.如何如何,忘我實多.』此自以忘我者也²⁰⁵⁾.”於是文侯大悅,曰:“欲知其子視其母,欲知其人視其友²⁰⁶⁾,欲知其君視其所使.中山君不賢,惡能得賢?”遂廢太子訴,召中山君以爲嗣.《詩》曰:“鳳凰于飛,翾翾其羽,亦集爰止.藹藹王多吉士,惟君子使,媚于天子.”君子曰:“夫使非直敝車罷馬而已,亦將喻誠信,通氣志,明好惡,然後可使也.”(〈8권 9장〉)

[22]

위 문후는 격이라는 맏아들과 소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다. 소는 어렸지만 그를 세워 후사로 삼았다. 격은 중산에 봉하자 삼년이나 왕래를 하지 않았다. 격의 스승인 조창당이 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잊는다 해도 아들이 아버지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여 사신을 파견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격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창당이 “제가 사신을 청합니다.”라고 하자, 격이 “허하노라.”라고 하였다. 이에 창당이 임금 위 문후가 좋아 하시는 것과 즐겨 잡수시는 것을 여쭙었다. 격이 “임금께서는 북방에서 나는 개를 좋아 하시고 야생 기러기를 즐겨 잡수신다.”고 하자, 마침내 북쪽에서 나는 개와 야생 기러기를 구하여 갖고 갔다. 창당이 (위 문후에게) 이르러 “북방 중산 번(蕃)국의 제후가 북방에서 나는 개와 야생 기러기를 갖추어 저 창당으로 하여금 재배하며 바치라고 하였습시다.”라고 하자, 문후가 “아! 격은 내가 북방에서 나는 개를 좋아 하고, 야생 기러기를 즐겨먹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고 하시며, 사신을 접견하였다. 문후가 “격은 별 탈이 없는가?”라고 하자, 창당은 예예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세 번을 물어도 세 번 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문후가 “대답을 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자, 창당이 “저는 제

205) 차자이망아자야(此自以忘我者也): 이 구절은 원래 없던 것인데, 《문선》〈사자강덕론〉주석에서 《한시외전》을 인용하면서 “위(爲)자”가 있으므로 의미가 더 분명하기 때문에 덧붙여 번역했다.

206) 욕지기인시기우(欲知其人視其友): 이 일곱 글자는 원래 탈락되어 없는데, 《설원》〈봉사〉편을 근거로 보충해 넣어서 번역했다.

후는 임금의 이름을 일컫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기왕에 이미 중산이라는 작은 고을을 격에게 내려주셨으면 그가 작은 나라의 제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임금께서는 여전히 이름으로 물으시니 감히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고쳐서) 문후가 “중산의 제후는 별 탈이 없는가?”라고 하자, 창당이 “제가 떠나 올 때, 교외에까지 나오셔서 배웅하였습니다.”라고 하자, 문후가 “중산의 제후는 키가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자, 창당이 “제후를 물으시면 제후에 비교해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후의 조정에는 모시는 측근들이 모두 신하들뿐이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보내주신 의복은 입을 만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문후가 “중산의 제후는 또 무엇을 좋아하는가?”라고 하자, “《시》를 좋아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문후가 “《시》에서는 어느 편을 좋아하는가?”라고 하자, “〈서리〉 편과 〈신평〉 편을 좋아 합니다.”라고 하자, 문후가 “〈서리〉는 어떤 시인가?”라고 하자, 창당이 “무성한 기장, 질푸르고 무성한 수수 싹. 멀리 가려는데 걸음걸이 느려 답답함 다할 길 없네.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근심하기 때문 이라고 하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하네. 아득히 높이 있는 푸른 하늘이여! 나를 집 떠나게 해치는 자가 누군가!”라고 읊자, 문후가 “원망하는가?”라고 하자, “감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따금씩 그리워하기 때문이지요.”라고 하자, 문후가 “〈신평〉은 어떤 시인가?”라고 하자, 창당이 “‘빨리 나는 저 새매는, 북 숲 뺨뺨한 곳에 집이 있네. 오랫동안 내 부군 만나지 못하니, 근심스런 이 내 마음 견디기 어렵네. 어찌할꼬? 어찌할꼬? 나를 아직도 생각이나 할까?’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읊었다. 이에 문후는 크게 기뻐하며 “그 자식을 알려면 그 어머니를 보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며, 그 임금을 보려면 그가 부리는 사람을 본다고 하였다. 중산 제후가 어질지 않다면 어찌 현명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태자 소를 폐하고 중산 제후를 불러 후사로 삼았다. 《시경》〈대아·권아〉 편에서 “봉황새 높고 높은 하늘에 나니, 수많은 새들 뒤 따르고, 봉황새 나뭇가지에 앉으니 새들도 모여드네. 주왕(周王) 결의 수많은 현명한 신하들 맘대로 지혜를 바치도록 해도, 천자 떠받들며 감히 거스르지 않네.”라고 하였다. 군자들은 “무릇

사신은 수레를 훼손하고 말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장차 진정한 신의(信義)를 표현하고 용감하게 쌍방의 사상을 교류하며 좋아하고 싫어함을 밝힌 연후에야 사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23]

湯作《濩》, 聞其宮聲, 使人溫良而寬大. 聞其商聲, 使人方廉而好義. 聞其角聲, 使人惻隱而愛仁. 聞其徵聲, 使人樂養²⁰⁷⁾而好施. 聞其羽聲, 使人恭敬而好禮. 《詩》曰: “湯降不遲, 聖敬日躋.”²⁰⁸⁾ (〈8권 30장〉)

[23]

탕이 지은 《호》라는 악곡에서 저 궁성(宮聲)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선량하며 마음이 넓고 크도록 하네. 저 상성(商聲)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방정(方正)하고 청렴하며 정의를 좋아하도록 하네. 저 각성(角聲)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어짊을 좋아하게 하네. 저 치성(徵聲)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게 하네. 저 우성(羽聲)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예를 좋아하게 하네. 그러므로 《시경》〈상송·장발〉편에서 “상탕은 겸손하고 게으르지 않아, 밝은 지혜와 공경스런 품덕(品德)이 나날이 향상되었지.”라고 하였던 것이다.

[24]

伯牙鼓琴, 鍾子期聽之. 方鼓琴, 志在太²⁰⁹⁾山. 鍾子期曰: “善哉鼓琴, 巍

207) 양(養): 《사기》〈악서(樂書)〉에는 “선(善)”자로 되어 있고 문맥상 “양”자보다는 “선”자가 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선”자의 의미로 번역했다.

208) 이 구절은 《시경》〈상송·장발〉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209) 태(太): 옛 판본에는 탈락되어 없었지만, 여불위(呂不韋)의 《여씨춘추(呂氏春秋)》〈본미(本味)〉편과 《설원》〈존현(尊賢)〉편에 기재된 “志在太山”을 근거로 보충해 넣어서 번역했다.

巍乎如太山!” 莫景之間²¹⁰⁾, 志在流水. 鍾子期曰: “善哉鼓琴, 洋洋乎若江河!” 鍾子期死, 伯牙擗琴絕絃, 終身不復鼓琴, 以爲世無足與²¹¹⁾鼓琴也. 非獨鼓²¹²⁾琴如此, 賢者亦有之. 苟非其時, 則賢者將奚由得遂²¹³⁾其功哉?
(〈9권 5장〉)

[24]

백아가 금을 탈 때 종자기는 그것을 듣고 있었다. 막 금을 타려 할 때 태산에 뜻을 두었다. 종자기가 “훌륭하구나! 금을 타는 것이, 높이 우뚝 솟은 것이 마치 태산 같네!”라고 하였다. 이윽고, 흐르는 물에 뜻을 두고 금을 탔다. 종자기가 “훌륭하구나! 금을 타는 것이, 호탕(浩蕩)하기가 큰 강하(江河)같네!”라고 하였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가 금을 부수고 현을 끊어버리고는 종신토록 다시는 금을 타지 않은 것은 세상에 금을 타서 듣게 해줄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지 금을 타는 것만 이와 같은 아니고 현명한 사람도 그와 같다. 만약에 그 때를 만나지 못한다면 현명한 사람도 장차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3. 나가며

《한시외전》의 내용이나 체례는 다만 《시경》을 인용해서 사실을 증명한 것이므로 사실 《시경》의 내용과는 그다지 관련이 많지 않지만, 《한시외전》에서 드러낸 중요한 문예관을 천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10) 막경지간(莫景之間): 이 네 글자도 없던 것인데, 《설원》〈존현〉편에 “少選之間”으로 되어 있고, 유의경(劉義慶)의 《세설신어(世說新語)》〈상서(傷逝)〉편에서 《한시외전》을 주석으로 인용하면서 “莫景之間”으로 되어 있다. 둘 다 의미상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본문처럼 덧붙여 번역했다. 의미는 이윽고 또는 조금 있다가라는 것이다.

211) 여(與): 원대 판본에만 “이(以)”자로 되어 있다.

212) 고(鼓): 옛 판본에는 탈락되어 없는데, 《설원》〈존현〉편에 “고”자가 덧붙여 있고 의미상 더 명확하므로 덧붙여 번역했다.

213) 수(遂): “성(成)”자의 의미이다.

첫째, 선진(先秦)이래의 시가와 음악·춤이 하나라는 전통 관념을 계승하였다. 특히 음악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각기 다른 것을 조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작용에 주의를 기울였고, “음악을 통해 인물의 형상까지도 드러내며 악곡을 통해서는 사람됨까지 알 수 있다”(樂以見象, 聲以知人)고 하였다. 치국(治國)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되면 은택은 못 생명에게 흘러들고, 복은 국왕과 공후(公侯)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은택이 못 생명에게 흘러들면 백성들은 편안하고 화목해지며, 백성들이 편안하고 화목한 마음을 품게 되며, 자신들의 위 국왕과 공후를 모시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면 “아래가 다스려져 위로 통하게 되고 칭송의 소리가 흥기하게 되는 까닭이다.”(下治而上通, 頌聲之所以興也.)고 하였다. 아울러 음악을 통해 문예이론의 감상론(感賞論)영역에 해당하는 백아와 종자기의 지음(知音)을 부각시켰다.

둘째, 《시경》의 “치용(致用)”을 강조해서 정치적인 실용성과 공용성을 드러내었다. 한대에 《시경》을 전한 사가(四家)의 목적은 당시 정교(政敎)를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모든 시마다 성인(聖人)의 도인 공자의 학설과 제왕들의 공적에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 유학자들이 《시경》을 다룰 때는 특별히 “치용”을 강조해서 정치적인 실용성과 공용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는데 한영도 예외가 아니었다. 맹자는 일찍이 시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법론인 “이의역지(以意逆志)”²¹⁴⁾를 주장했는데, 한대 유학자들은 이것을 《시경》

214) 춘추시기 이래 시를 짓는 사람들은 정치와 외교활동 같은 장소나 저술해서 자신의 학설을 세울 때는 흔히 《시경》중의 일부 구절들을 취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맹자도 늘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것은 본래 그 당시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함구몽이 이 방법을 운용해서 작품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대단히 황당무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맹자는 “이의역지”의 방법으로 《시경》〈대아·운한〉편에서 “주나라의 남은 백성은 하나도 남김이 없다(周餘黎民, 靡有孑遺)”고 한 부분은 문학작품을 묘사할 때 예술적인 과장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나라의 남은 백성은 하나도 남김이 없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맹자가 문학 창작에 사용한 수사법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공손추가 《시경》〈소아·소변〉편의 구절에서 고자는 《시경》〈소아·소변〉편에서 어버이를 원망했기 때문에 “소인의 시이다”고 한 것을 물을 때나, 공손추가 《시경》〈패풍·개풍〉편에서 어버이를 원망하지 않는 것을 들어 반문할 때에도 맹자는 “이의역지”의 방법을 근거로

으로 자신들의 뜻에 부합하도록 바꾸어버렸다. 그 결과로 《시경》을 강해(講解)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으로 추측하고 단정해서 “예의(禮義)”라는 모식(模式)속에 귀납시켰으므로 《시경》의 첫째 편인 〈관저〉마저도 성인의 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한영은 한결 음 더 나가 공자의 입을 빌어 남녀지간의 혼인이나 애정까지도 고도로 추상화시켰고, 시(詩)는 설명하지 않은 채, 《주역》에서 “천지가 있고 난 다음에 만물이 있게 되었고, 만물이 있고 난 다음에 남녀가 있게 되었으며, 남녀가 있고 난 다음에 부부가 있게 되었고, 부부가 있고 난 다음에 부자가 있게 되었으며, 부자가 있고 난 다음에 군신이 있게 되었고, 군신이 있고 난 다음에 위아래가 있게 되었으며, 위아래가 있고 난 다음에 예의의 시행하는 것이 있게 되었다.²¹⁵⁾”는 연역(演繹)을 가하여 마침내 “곧 천지 만물의 기본(乃天地之基)”이자, “천지지간의 모든 도리와 인류의 모든 품덕 및 왕도의 근원(天地之間, 生民之屬, 王道之原)”이라는 신성한 지위를 얻도록 하였다. 이러한 당시 분위기는 지극히 보편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시를 지을 때는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관건은 “어버이를 어버이로 여기는지”[親親]와 “어진지”[仁]·“효성스러운지”[孝] 등등의 원칙을 위배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맹자가 유가의 윤리와 도덕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근본 원칙으로 삼고, 동일하게 그 원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의 본의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의역지”의 “의”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법이 있어왔다. 하나는 종래의 주석가들이 해석한대로 ‘시를 설명하는 사람 자신의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대 조기는 “의란 학자의 마음이나 뜻이다(意, 學者之心意也)”고 주석을 달았고, 또 “사람의 정감이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시인(詩人)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해 그 시의 의미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人情不遠, 以己之意逆詩人之志, 是爲得其意矣)”고 했다. 주석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독자나 비평가가 자신의 뜻으로 작가나 작품을 몸소 깨닫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한대 조기는 《맹자제사》에서 “이 말은 아마도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해서 그 문장을 해석하도록 한 것이 지 단지 시를 설명하는 데만 사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斯言殆欲使人深求其意以解其文, 不但施於說詩也)”고 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말하는 “의”자는 작가나 작품의 “뜻[意]”을 가리키지, 독자나 평론자의 “뜻[意]”은 아니기 때문에 옛 주석에 보이는 해석과는 다르다.

215) 《주역》〈서괘전(序卦傳)〉에서 인용.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

적인 것이어서 당시 《제시(齊詩)》를 배웠던 광형(匡衡)도 《시경》의 〈관저〉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공자께서 《시경》을 논할 때는 〈관저〉를 시작으로 삼고, 높이 황제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백성의 부모라고 했는데, 그 황후의 품행이 천지와 짝을 이룰 수 없으면 신령의 통치를 받들고 만물의 마땅함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경》 〈주남·관저〉 편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고 한 것은 정숙(貞淑)하고 단정한 품행을 갖추며, 두 마음을 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욕정의 감정을 자태나 풍모(風貌)속에 드러내지 않으며, 연락(宴樂)과 사사로운 뜻을 언행(言行)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무릇 그렇게 한 후에야 지극히 존귀한 황제의 배필이 되고 종묘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질서와 국가기강의 요체이자 성왕께서 교화하는 시작입니다. 전대(前代) 이래로 삼대의 흥폐에 이르기까지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²¹⁶⁾라고 하였다. 광형은 한영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리따고 생기발랄한 시골 아가씨를 “후부인(后夫人)”으로까지 격상시켜 놓고, 바깥에는 온통 삼엄(森嚴)한 부덕(婦德)관념을 더해 놓은 채, 터무니없이 날조하여 나라의 흥폐와 기강이 모두 이로 말미암는다고 함으로써 더 이상 미화할 수 없는 지경까지 끌어올려 놓았다. 한대 《시경》박사들이 《시경》을 왜곡시킨 정도의 일단을 노정(露呈)하였다. 왜곡의 정도가 이렇게 까지 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록들을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시학(詩學)의 의미도 없지만, 한나라 당시의 《시경》을 왜곡한 결과를 봄으로써 시의 창작과 수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영은 또 “정(情)”과 “지(志)”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는 먼저 사람이 가진 정(情)과 욕(欲)을 인정하였지만, 반드시 “예로 그것을 절제시키고(節之以禮)”, “의로 그것을 제지시킨다.(制之以義)”는 견해를 보면, 《모시서》에서 말하는 “예의에 그친다.(止乎禮義)”는 한대 유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의 범주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된다. 한영

216) 《한서》권81 〈열전(列傳)51·광형(匡衡)〉에서 인용. “孔子論《詩》，以〈關雎〉爲始，言太上者，民之父母也，后夫人之行不侔乎天地，則無以奉神靈之統而理萬物之宜。故《詩》曰：‘窈窕淑女，君子好仇。’言能致其貞淑，不貳其操，情欲之感無介乎容儀，宴私之意不形乎動靜。夫然後可以配至尊而爲宗廟主。此綱紀之首，王教之端也。自上世已來，三代興廢，未有不由此者也。”

이 말하는 “지(志)”를 “선량한 하나의 성품을 길러 여섯 가지 기운을 제어한다.(養一性而御六氣)”는 측면에서 보면 맹자가 《맹자》〈공손추상(公孫丑上)〉에서 말한 “자기의 의지를 잘 견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자기의 의기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持其志, 無暴其氣)”는 것과 “그것이 기운(氣運)됨이야말로 반드시 의와 도에 배합된다.(其爲氣也, 配義與道)”는 것과는 서로 통하는 것이다. 또 “강하지도 않고 부드러지도 않으면서 중도에 부합될(不剛不柔而中道)”것을 강조한 것은 공자와 자사(子思)의 “중용과 조화에 이른다.(致中和)”는 사상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한대 유학자들이 선진(先秦)의 유학사상에 대해서는 절대 충성하는 태도를 취하였지만, 기(氣)와 성(性)·정(情)·지(志) 등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영이 말한 “일성(一性)”과 “육기(六氣)”는 “지(志)”의 근본이고, 또 자신에게 귀한 것은 “기보다 귀한 것은 없다.(莫貴於氣.)”고 말하였으며, “사람이 기를 얻으면 살고, 기를 잃으면 죽는다. 그 기는 황금이나 비단·구슬·옥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비단이나 베·오곡이 아니므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내 몸에 있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도다.”²¹⁷⁾라고 하였다. 사실 이 부분을 생리학(生理學)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정확하다. 만약 이 부분을 논리적인 추리를 통해 미루어본다면 성(性)과 정(情)·지(志)는 모두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궁극적으로 《시경》의 작자들에게까지 확대시켜나가면 모든 시의 “정”과 “지”를 그렇게까지 경직화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과 연관시켜 언급할만한 것은 《제시(齊詩)》의 또 다른 전수자였던 익봉(翼奉)은 “오성(五性)”과 “육정(六情)”설을 제기하여 음양오행으로 사람의 성정을 확정하였고, “성과 정을 아는 것(知性情)”을 《시경》을 배우는 방편으로 삼았다. 즉 “그 말미암은 것을 관찰하고 그 진퇴를 살피며, 오행육합을 참조하면 사람의 본성을 보고 사람의 정감을 알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관찰하기는 어렵겠지만, 안으로부터 하면 심히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시경》을

217) 《한시외전》권8의 두 번째 문장에서 인용. “人得氣則生, 失氣則死. 其氣非金帛珠玉也, 不可求於人也. 非繒布五穀也, 不可糴買而得也. 在吾身耳, 不可不慎也.”

배우는 것은 성정을 따를 뿐입니다. 오성이 서로 해치지 않고, 욕정이 서로 흥폐를 번갈아가며 교체합니다. 역서(曆書)로 인성을 관찰하고, 십이율로 인정을 관찰하는 것은 성군께서 응당 홀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²¹⁸⁾”라고 하였다. “오성(五性)”에 대한 안사고(顔師古)의 주석에 의하면 즉 간(肝)과 비(脾)·심(心)·폐(肺)·신(腎)의 “성”이다. 익봉은 사람의 성정과 오행육합이 상생(相生)하고 상참(相參)하는 것이 천지자연과 사람의 생리가 상호 감응하는 결과로 본 것이다. 이것은 한영의 “육기”설과 서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가를 통해 사람의 인정과 인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데, 익봉이 “《시경》을 배우는 것은 성정을 따를 뿐입니다.(《詩》之爲學, 情性而已)”라고 한 것은 의심할 필요 없이 학술적인 각도에서 시가영역에서 “정”이 갖는 중요한 지위를 긍정한 것이라 하겠다.

넷째, 예술(藝術)기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장자(莊子)는 문예를 언급할 때 양생(養生)의 이치에 비유하였는데, 예를 들면 “포정이 소를 잡는 것(庖丁解牛)”이나 “윤편이 수레바퀴 깎는 것(輪扁斲輪)”·“곱추가 매미를 잡는 것(庖俵者承螭)”·“한 노인이 여량 폭포에서 수영하는 것(一丈人游呂梁懸水)” 등이다. 장자는 이 우언들을 통해 후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영향을 끼쳤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우언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규율에는 모두 그 나름의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인 “도(道)”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장자》〈천도(天道)〉편에서 “그 사이에 묘수가 있다(有數存焉於其間)”고 한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물이 나를 위해 쓰임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이 가진 본래의 “도”를 인식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마치 “칼을 놀림에 여유가 있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손에 응하는(游刃有餘, 得心應手)” 경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사물이 가진 본래의 “도”를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간 그 일에 종사하고, 엄숙

218) 《한서》권75 〈열전(列傳)45·익봉(翼奉)〉에서 인용. “察其所繇, 省其進退, 參之六合五行, 則可以見人性, 知人情. 難用外察, 從中甚明, 故《詩》之爲學, 情性而已. 五性不相害, 六情更興廢. 觀性以曆, 觀情以律, 明主所宜獨用, 難與二人共也.”

하게 그 사물을 대하며, 오로지 마음과 뜻이 그것만을 생각하고, 고생을 참아내며 더 깊이 연마하며, 정교할수록 더더욱 정밀한 것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온전한 소 한 마리로 보인 적이 없다(三年之後, 未嘗見全牛也)”고 한 것이나, “십구 년을 사용했어도 칼날은 막 숫돌에서 갈아낸 듯합니다.(十九年而刀刃若新發於硎)”. “나이 칠십이 되어도 여전히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行年七十而老斲輪)”. “두려워 경계하고, 보는 것을 집중하며(悚然爲戒, 視爲止)”. “뜻을 사용함이 분산되지 않으면 귀신에 비견된다고 했다(用志不分, 乃凝於神)”는 것들이다. 부정적인 영향은 사물의 “도”와 “정묘(精妙)”한 곳은 단지 깨달을 수만 있는 것이지 말로 전달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영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미(精美)한 것은 전할 수 없고, 전하는 것은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역설하였다.

다섯째, 한영은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숭상하여 “사상과 행위가 일치해야 하고 명성과 실체가 부합해야 하며, ……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야 오래 살고 오래 볼 수 있으며, 영화나 부귀 같은 바깥 사물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情行合而名副之, …… 惟其無爲, 能長生久視, 而無累於物矣.)”고 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명(名)과 실(實)이 서로 부합되고, 그 어떤 인위적인 아름다움도 없어야 하며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연미”는 일반적으로 “소박미”로 체현되는데, “마음속에 선량한 것을 보존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면 홀로 거하더라도 즐겁고, 덕은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中心存善, 而日新之, 則獨居而樂, 德充而形)”, “마음속에 있는 것도 반드시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有中者必能見外也.)”고 하였다. “소박”을 협의의 개념으로 말하면 만물의 원생(原生)상태인 조탁을 거치지 않는 “순박(純朴)”이다. “아름다움[美]”의 기초는 “자연스러움[自然]”이기 때문에 한영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야 하며(無爲)”, “마음속에 있는 것도 반드시 겉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제창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영은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통일시켰다.

<參考文獻>

202·中國學 第41輯(2012.4)

- 班固 著,《漢書》(北京:中華書局,1982)
- 司馬遷 著,《史記》(北京:中華書局,1982)
- 伏生 著,《尚書大傳》(北京:中華書局,1994)
- 黃懷信 著,《逸周書校補注譯》(修訂本)(西安:三秦出版社,2006)
- 程俊英 校注,《詩經校注》上下(北京:中華書局,2000)
- 程俊英 譯注,《圖文本詩經譯注》上下(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6)
- 周振甫 譯注,《周易譯注》(北京:中華書局,2000)
- 楊伯峻 譯注,《論語譯注》(北京:中華書局,1984)
- 高明 註譯,《大戴禮記今註今譯》(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1)
- 管子 著,盛廣智 注譯,《管子譯注》(長春:吉林文史出版社,1998)
- 莊子 著,陳鼓應 注譯,《莊子今注今譯》(北京:中華書局,1984)
- 荀子 著,楊柳橋 譯,《荀子詁譯》(濟南:齊魯書社,1995)
- 韓非 著,張覺 等撰,《韓非子譯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7)
- 李士彪 校注,《孔叢子》(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
- 薛安勤 譯注,《孔子家語今注今譯》(大連:大連海運學院出版社,1993)
- 韓嬰 撰,趙懷玉 校,《韓詩外傳校》(北京:中華書局,1954)
- 韓嬰 撰,周廷棠 注,《韓詩外傳注》(北京:中華書局,1955)
- 韓嬰 撰,許維通 校釋,《韓詩外傳集釋》(北京:中華書局,1980,2009)
- 韓嬰 撰,曹大中 譯,《白話韓詩外傳》(長沙:岳麓書社,1994)
- 陳廣忠 注譯,《淮南子譯注》(長春:吉林文史出版社,1990)
- 陳一平 著,《淮南子校注譯》(廣州:廣東人民出版社,1994)
- 董仲舒 著,蘇輿 撰,《春秋繁露義證》(北京:中華書局,1984)
- 王鎡,王天海 著,《說苑全譯》(貴陽:貴州人民出版社,1992)
- 蕭統 編,李善 注,《文選》(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
- 劉勰 著,范文瀾,《文心雕龍註》(北京:中華書局,1993)
- 鍾嶸 著,徐達 譯注,《詩品全譯》(修訂版)(貴陽:貴州人民出版社,2008)
- 劉義慶 著,張萬起 外 1 人 譯注,《世說新語譯注》(北京:中華書局,1998)
- 徐堅 著,《初學記》(北京:中華書局,1984)
- 歐陽詢 撰,汪紹楹 校,《藝文類聚》上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9)
- 李昉 等 著,《太平御覽》(北京:中華書局,1984)
- 張碧波 主編,《中國詩學辭典》(哈爾濱:哈爾濱出版社,1992)

- 陳良運 主編,《中國歷代詩學論著選》(南昌:百花洲文藝出版社,1995)
霍松林 主編,《中國詩論史》上(合肥:黃山書社,2007)
曹道衡,劉躍進 著,《先秦兩漢文學史料學》(北京:中華書局,2005)
張峰屹 著,《西漢文學思想史》(天津:南開大學出版社,2001)
王金凌 著,《中國文學理論史》(臺北:華正書局,1987)
顧易生,蔣凡 著,《先秦兩漢文學批評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
紀昀 等編制,《四庫全書簡明目錄》(北京:中華書局,1964)
紀昀 等編制,《四庫全書總目提要》(北京:中華書局)

<中文提要>

韓嬰《韓詩外傳》中,將涉及有關文藝理論主張的文章,進行了選譯,並加以詳細的註釋。《韓詩外傳》的內容和順序與《詩經》頗為相似,但其實僅為利用《詩經》,求得實證而已,與《詩經》內容有關的並不多見。《韓詩外傳》部分內容中,可以發現其中論述了韓嬰重要的文藝觀點。考察西漢前期文藝思想發展的過程,儒家思想與道家思想錯綜複雜地交織在一起,這種特征在韓嬰的文藝思想中得以充分體現。他在為《詩經》中的〈關雎〉、〈甘棠〉、〈黍離〉等詩篇,所作的解說部分,以及關於‘誠中形外’的文學觀,對於‘知者樂水’和‘仁者樂山’論述等,與孔子的文藝美學觀點非常相似。韓嬰的觀點中,對‘音樂相和’和‘物類相感’的見解,受到‘陰陽五行’思想的影響,參雜着‘無聲有聲’和‘應心動體’的主張,明顯反映出道家文藝思想的特征。在今文和三家詩中,唯一流傳于后世的韓嬰文藝觀和文藝理論的理解是很有學術價值的。

關鍵詞：韓嬰 《韓詩外傳》 文藝觀 儒道雜糅特征
陰陽五行思想影響 道家文藝思想 譯注

투 고 일 : 2012.2.26
심 사 일 : 2012.3.10~4.15
게재확정일 : 2012.4.20